

# 표준어모음

국어연구소

국어생활 · 1990년 가을호 · 제 22호

1985년 8월 13일 등록 · 등록 번호 바-895 · 계간

1990년 10월 10일 인쇄

1990년 10월 15일 발행

발행인 · 안 병 회

발행처 · 국 어 연 구 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8 해영회관(110-240)

전화 734-9868·9

인 쇄 · 삼중문화사 · 312-2011

## 일 러 두 기

1. 이 ‘표준어 모음’은 ‘새한글사전’(한글학회 간행, 1965/1986년)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간행, 1982년)에서 표제어로 제시한 단어가 일치되지 않는 고유어와, 사전에서 그 고유어에 관련 지어 놓은 단어를 심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관련 단어에는 한자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신조어, 전문용어, 맞춤법이 문제되는 말은 두 사전에서 상충되더라도 심의되지 않았으나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동식물 용어는 심의하였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말(‘-하다’와 결합된 말은 제외함)이나 한자어의 변한말은 포함되었으나,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말이라도 한자어의 발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 ‘표준어 모음’에 포함되지 않았다.
2. ‘표준어 모음’의 표준어에 대한 심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에 따랐다.
3. ‘표준어 모음’은 심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 (1) 어휘 선택
  - (2) 발음 : 1) 장단
    - 2) 경음(편의상 ‘ㄴ’ 첨가와 관련되는 단어도 포함하였음)
4. ‘어휘 선택’ 부분에서는 ‘표제어’란, ‘관련 단어’란, ‘비고’란, ‘관련 규정’란을, ‘발음’(장단, 경음) 부분에서는 ‘표제어’란, ‘비고’란의 형식에 따라 제시하고, 표제어는 ‘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의 한글 자모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다. 각 난(欄)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1) 어휘 선택
    - 1) 표제어 : 두 사전에서 상충되는 단어, 즉 두 사전에서 서로 다른 형

## 2 표준어 모음

태를 표준어로 인정한 단어나 한 사전에서는 표준어로 인정하고 다른 한 사전에서는 비표준어로 처리한 단어들이다. 심의 결과, 비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는 그 앞에 X표를 하였다.

표제어	관련 단어	비고	관련 규정
발짓	발질	‘발짓’은 ‘발을 움직이는 짓’의 뜻으로, ‘발질’은 ‘발길질’의 뜻으로 인정함.	26
소낙비	소나기		26
X으시대다	으스대다	으쓱거리며 뽐내다.	17 11

2) 관련 단어 : ㄱ) 두 사전에서 서로 다른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에 표제어에 한 형태를 제시하고 다른 한 형태를 관련 단어에 실려, 표제어와 관련 단어를 바꾸어서도 실었다. 그리고 심의 결과 사전상의 두 형태가 모두 비표준어로 처리되고 새로운 형태가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에는 바로 아래 칸의 ‘관련 단어’란에 표준어로 인정된 형태를 실었다.

표제어	관련 단어	비고	관련 규정
X겉껍더기	겉껍테기		09
겉껍테기	X겉껍더기		09
X가리마꼬챙이	X가리마꼬챙이		09
	가르마꼬챙이		09
X가리마꼬챙이	X가리마꼬챙이		09
	가르마꼬챙이		09

ㄴ) 비표준어로 처리된 표제어의 경우에는 그 단어의 표준어의 형태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여기에는 한자어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표제어	관련 단어	비고	관련 규정
X맛대강이	맛		25
X배춧패기	배추속대		25
X잎전	엽전(葉錢)		22 25

ㄷ) 표제어와 같은 단어로서 이번 심의에서 비표준어로 처리된 단어

를 실었다. 이 경우에도 비표준어로 처리된 단어 앞에 ×표를 하였다.

표제어	관련 단어	비 고	관련 규정
빨갱이	×빨강이	1. 공산주의자 2. ‘빨간 빛의 물건’의 뜻으 로는 ‘빨강이’를 인정함.	09 17
턱받이	×턱받기	어린이의 턱 아래에 대어 주는 형질	25

3) 비교 : 표제어의 의미, 관련 단어와의 관계, 예문, 고시된 표준어 등 표제어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비고’란에 제시하는 정보가 표제어에 대한 것인지 관련 단어에 대한 것인지를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제어에 대한 것이다.

4) 관련 규정 : 심의 과정에서 적용한 ‘표준어 규정 제 1부 표준어 사정 원칙’의 항을 제시하였다.

## (2) 발 음

1) 표제어 : 7) 장단 : 두 사전에서 장단음 여부가 엇갈리는 단어를 제시하되 심의 결과를 그대로 표제어에 반영하였다. 즉 제 1음절에서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심의된 단어는 제 1음절과 제 2음절 사이에 장음부 ‘:’표를 하였으며, 단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심의된 단어는 장음부 ‘:’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장음부 ‘:’표가 있는 단어의 단음형은 비표준 발음으로 처리된 것이며, 단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제시된 단어의 장음형도 비표준 발음으로 처리된 것이다.

표제어	비 고
견 : 냇방	
땀 : 나무	
지난날	
해	내 ~, 뒤 ~

ㄴ) 경음 : 경음(‘ㄴ’ 첨가 포함)으로의 실현 여부가 엇갈리는 단어

## 표준어 모음

를 제시하되 심의 결과를 그대로 표제어에 반영하였다. 즉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심의된 단어는 표제어의 해당 위치에 ‘사이시옷’을 쓰거나 표제어 뒤에 그 음성형을 제시하였으며, 평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심의된 단어는 그 음성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제어에 ‘사이시옷’으로 표기되었거나 표제어 뒤의 [ ] 안에 제시된 경음으로 실현되는 단어의 평음형은 비표준 발음으로 처리된 것이고, 표제어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았거나 표제어 뒤에 그 경음형이 제시되지 않은 단어의 경음형은 비표준 발음으로 처리된 것이다.

‘ㄴ’ 첨가가 문제되는 단어는 ‘경음’ 부분에 준하였으나, ‘ㄴ’이 첨가된 발음과 첨가되지 않은 발음이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발음형 모두를 [ ] 안에 제시하였다.

표제어	비고
겨울잠[-잠]	
등짐[-짐]	
몸길이	체장(體長)
몸서리	
알긋알긋[알근날근/알그달근]	
큰일	다루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범위가 넓은 일
큰일[-닐]	큰[ ]예식이나 잔치를 치르는 일

2) 비고 : 표제어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5.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어 규정’에 따라랐다.

## 1. 어휘 선택

표제어	관련 단어	비고	관련 규정
×가귀뜨기	가귀대기	열다섯 곳 뽑기로 내기하는 투전 노름	17 25
가동질		가동거리는 짓	08
가래질꾼	가래꾼		16
가려잡다	골라잡다		26
가력되다	개력하다		26
×가리마꼬창이	×가리마꼬챙이		09
	가르마꼬챙이		09
×가리마꼬챙이	×가리마꼬창이		09
	가르마꼬챙이		09
×가리워지다	가리어지다		25
×가스라기	가시랭이		25
×가스랑이	가시랭이		25
가시줄	가시철사(-鐵絲)		26
각시	새색시	‘작게 만든 여자 인형’의 뜻으로도 인정함.	26
간단없다(間斷-)	끊임없다		26
간단없이(間斷-)	끊임없이		26
간밤	지난밤		26
×간장쪽박(-醬-)	간장쪽박(-醬-)		17
간장쪽박(-醬-)	×간장쪽박(-醬-)		17
×간해	지난해		25
×갈비	솔거리	불쏘시개로 쓰는 솔잎	25
갈잎나무	떡갈나무	‘떡갈나무’는 갈잎나무의 일종임.	26

6 표준어 모음

×갑화(-火)	도깨비불	21
값나다	금나다	1. 물건 값이 정해져서 팔 고 사고 할 수 있게 되 다. 2. ‘값나가다’의 준말로 는 인정하지 않음.
×값높다	값비싸다	‘값비싸다’의 뜻으로 ‘금 높다’도 인정함. 25
×강밥	늘은밥	‘강다짐으로 먹는 밥’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개소리괴소리	×개소리괴소문	17
×개소리괴소문	개소리괴소리	17
×개지	강아지	‘버들치’(물고기 이름)로 도 인정하지 않음. 25
갯버들	땅버들	전문용어로는 ‘갯버들’을 인정함. 26
×갱조개	가막조개	재첩 25
갱충맞다	갱충쩍다	26
거렁맞다	거렁스럽다	26
거름밭	거름기(-氣)	26
×거상	큰툰	25
거푼거푼		놓인 물체의 한 부분이 바 람에 불리어 떠들리었다가 가라앉았다가 하는 모양 25
×거풀	꺼풀	17
건건이	반찬(飯饌)	26
걸어취다	걸어잡다	26
×검은깨	주근깨	‘빛깔이 검은 참깨’의 뜻 으로는 인정함. 25
검정콩	검은콩	26
×겉껍더기	겉껍데기	09
겉껍데기	×겉껍더기	09
겉잡	수잡	26



×계걸스럽다	계검스럽다	1. 욕심껏 마구 먹어 대는 태도가 있다.	25
		2. ‘계걸들린 태도가 있다’의 뜻으로는 인정함.	
×계꼬리	계꽂지	지식이나 재주 등이 극히 적거나 짧음.	25
계꽂지	×계꼬리	지식이나 재주 등이 극히 적거나 짧음.	25
×계오다	지다	못 이기다.	20, 25
×고두밥	지에밥	1. 찹쌀 혹은 멥쌀을 시루에 찌서 만든 밥	25
		2. ‘되게 지은 밥’의 뜻으로는 인정함.	
고로(故-)	그러므로		26
×고물	고미	1. 반자의 한 종류	25
		2. ‘우물마루를 놓는 데 귀틀 두 개 사이의 구역’의 뜻으로는 인정함.	
×고부탕이	고비	1. 중요한 기회	25
		2. ‘피륙을 필을 지을 때 꺾여 겹쳐 넘어간 곳’의 뜻으로는 인정함.	
고운대	곤대	토란 줄거리	16
골짜	골짜기		16
×곰살굽다	곰살갑다		17
×곰탕	곰팡이		25
×곱수머리	곱슬머리		25
공히(共-)	모두		26
과경에(過頃-)	아까		26
과목밭(果木-)	과수원(果樹園)		26
괘팡스럽다	망령스럽다(妄靈-)		26
×괴임	괘	(고시) 괴다/고이다	18
	고임		18

8 표준어 모음

×괴임새	괘새	1. 괴어 놓은 모양	18
	고임새	2. (고시) 괴다/고이다	18
×권돌	고인돌		17
구기차나무(枸杞子-)	×괴좃나무		22 25
×구럭	망태기	‘새끼로 그물 뜨듯 눈을 드물게 떠서 만든 물건’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구역나다(軀逆-)	육지기나다		26
군기침	헛기침		26
굿복(-服)	굿옷		26
긋속말	귀엣말		26
그물눈	그물코		26
×곤두박질	곤두박질		05
글동무	글동접(-同接)		26
글동접(-同接)	글동무		26
금몸(金-)	금색신(金色身)		26
금줄(禁-)	인줄(人-)		26
기겁하다	×기급하다(氣急-)		05 17
기꼭지(旗-)	×기대강이(旗-)		25
기미채다(幾微-, 機微-)	김새채다		26
기수채다(幾數-)			26
기어코(期於-)	기어이(期於-)		26
기장	길이	‘옷 따위의 긴 정도’의 뜻으로 인정함.	26
×기지랑물	지지랑물		17
까까중			25
×까스라기	가시랭이		25
×깐보다	깔보다	‘어떤 형편이나 기회에 대하여 마음 속으로 가늠을 보다’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깔딱	딸꾹	1. 딸꾹질하는 소리	25
		2. ‘액체를 조금씩 삼키	

는 소리' 또는 '얇은 물체가 뒤집히는 소리'의 뜻으로는 인정함.

×갈딱거리다	딸꾹거리다	25
×갈딱갈딱	딸꾹딸꾹	25
깡충하다	×깡충하다	다리가 길다. 큰말은 '깡충하다'임. 08
×깡충하다	깡충하다	다리가 길다. 큰말은 '깡충하다'임. 08
×개보숭이	개소금	'들개의 꽃송이와 참쌀가루를 버무려 기름에 튀긴 반찬'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개보숭이	개고물	25
×개이다	깨다	1. '(알을) 까다'의 피동 25 2. '(잡을) 깨다'의 피동의 뜻으로는 인정함.
×개이다	깨다	'(알을) 까다'의 사동 25
걱걱푸드덕	×걱걱푸드득	장끼가 울며 뻘치는 소리 17
×걱걱푸드득	걱걱푸드덕	장끼가 울며 뻘치는 소리 17
끔벅거리다	끔벅거리다	19 26
×꼬끼댕	꼬꼬댕	17
×꼬창이	꼬챙이	09
꼬챙이	×꼬창이	09
×꼬치	고추	17
×꼬치	고치	17
×꼭두머리	꼭대기	'시간적으로 일의 가장 처음'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꼼작달짝	×옴쭈달짝	17 25
꼼추	곱사등이	26
꽃자루	꽃꼭지	전문용어로는 '꽃자루'를 인정함. 26
×꽃턱	×꽃받기	꽃받침 25
×피장이	피보	26 09

10 표준어 모음

	찌쟁이		26 09
×꾸다	꾸다	1. 방귀를 ~. 2. ‘빌려 오다’의 뜻으로 는 인정함.	25
끝전(-錢)	끝돈	(고시) ×잔전→잔돈	26
×낄룩	끼룩	(내다보거나 삼키려 할 때) 목을 길게 빼어 내미 는 모양	14 25
나방이	나방		16
×나부라기	나부랭이	(고시) 나부랭이/너부랭이	25
난목(-木)	의올베		26
×난봉장이	난봉꾼		09
	난봉쟁이		09
×날물	썰물	‘나가는 물’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날빛	햇빛	‘햇빛을 받아서 나는 온 세상의 빛’의 뜻으로는 인 정함.	25
남자답다(男子-)	사내답다		26
×내나	일껏	‘결국은’의 뜻으로는 인 정함.	25
내송	×내흉(內凶)		05 17
내송스레	×내흉스레(內凶-)	(고시) ×내흉스럽다→내 송스럽다	05 17
냉국(冷-)	찬국		26
너울지다	놀지다		16 26
널판때기	×널판대기		26 17
널판자(-板子)			26
×네	네	(고시) 네/예	17 18
×노란묵	노랑묵	치자 물을 타서 쏜 녹말묵	17
노랑묵	×노란묵	치자 물을 타서 쏜 녹말묵	17
녹슬다(綠-)	×녹쓸다(綠-)		17
×녹쓸다(綠-)	녹슬다(綠-)		17

× 누룽지	눌은밥	1. 솔바닥에 눌러붙은 눌 은밥에 물을 부어 끓여 푼 것. 2. ‘솔바닥에 눌러붙은 밥’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눈꼴시다	눈꼴틀리다		26
눈쌘	눈싸움	눈겨름	16
× 느루	늘	‘대변에 몰아치지 않고 길게 늘여서’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늦장	늑장	‘느직하게 보러 가는 장’ 의 뜻으로도 인정함.	26
× -(으)니까니	-(으)니까		25
다각도로(多角度-)	여러모로		26
다릿골독	×대릿골독		09 25
다슬기	대사리	전문용어로는 ‘다슬기’를 인정함.	26
다홍(-紅)	진홍(眞紅)		26
단결음에(單-)	단숨에(單-)		26
단김에	단결에		26
단연코(斷然-)	단연히(斷然-)		26
담썩	×담썩	손으로 탐스럽게 쥐거나 팔로 탐스럽게 안는 모양	08
×담썩	담썩	손으로 탐스럽게 쥐거나 팔로 탐스럽게 안는 모양	08
당달봉사(-奉事)	청맹과니(靑盲-)		26
대감굿(大監-)	대감놀이(大監-)		26
대변보다(大便-)	뒤보다		26
×대접문(-紋)	대접무늬		21
×댓가지	댓개비	1. 대를 쪼개 잘게 깎은 꽃이 2. ‘대의 가지’의 뜻으로 는 인정함.	25

12 표준어 모음

댓돌(臺-)	섬돌	‘집채의 낙숫고랑 안쪽에 돌러가며 놓은 돌’의 뜻으로도 인정함.	26
×더껍이	더께	1. 뒤어서 몹시 찌든 물건에 앉은 때 2. ‘걸쭉한 액체의 거죽에 엉겨 굳은 꺼풀’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더미쇠우다	다미쇠우다	(고시) 안다미쇠우다	19
×덧구두	덧신		25
덜개	뚜껍	‘이불, 처네 등의 총칭’ 또는 ‘착한 마음을 덮어서 가리는 탐욕이나 성내는 마음’의 뜻으로도 인정함.	26
도리깨장부	도리깨채		26
도토리나무	떡갈나무	‘도토리나무’는 ‘상수리나무’의 별칭으로 ‘떡갈나무’와 별개임.	26
돈지갑(-紙匣)	지갑(紙匣)		16 26
돈표(-票)	환(換)		26
돋보기안경(-眼鏡)	돋보기		16 26
돌개바람	구풍(颶風)	‘회오리 바람’의 뜻으로도 인정함.	26
돌기와	너새		26
돌림자(-字)	항렬자(行列字)		26
동강이	동강		16
동동걸음	종종걸음		26
동자부처(童子-)	눈부처		26
동자부처(童子-)	동자보살(童子菩薩)	사람의 두 어깨에 있다는 신(神)	26
두견새(杜鵑-)	소쩍새		26
두견이(杜鵑-)			26

× 두텁단자(-團子)	두텁떡	21
들러쓰다	뒤집어쓰다	26
뒤뒤	드레드레	수봉기(受蜂器)를 대고 벌비로 몰아넣을 때 벌을 부르는 소리 26
× 뒷개	설거지	웃놀이 용어로는 인정함. 25
뒷결박(-結縛)	뒷짐결박(-結縛)	26
뒷골	뒤통수	26
뒷마당	뒤뜰	26
뒷전보다	뒷전놀다	26
듣그럽다	시끄럽다	26
× 들망(-網)	후릿그물	21
들쭉날쭉	들쭉날쭉	19 26
들오리	물오리	‘들오리’는 ‘집오리’에 대하여 야생의 오리를, ‘물오리’는 ‘청둥오리’를 말함. 26
× 들치다	들추다	‘물건의 한 쪽 머리를 쳐 들다’의 뜻으로는 인정하 고 ‘들치이다’의 준말로 는 인정하지 않음. 25
등혜엄	송장혜엄	26
× 딸각발이	딸각발이	17
땅강아지	×하늘밥도둑	25
× 땅꾼	땅꾼	1. 포도청에 매이어 포교 의 심부름으로 도둑잡 는 데 거드는 사람 25 2. ‘뱀을 잡아 파는 사람’ 의 뜻으로는 인정하고, ‘몹시 인색하고 이기적 인 사람’의 뜻으로는 인 정하지 않음.
땅덩어리	땅덩이	26

14 표준어 모음

×때까중	중대가리		25
×때깨중이	중대가리		25
떨기나무	×좁나무		25
×뚝하다	꼭하다	정직하고 안상(安祥)하다.	25
뚱뚱이	뚱뚱보		26
뜨문뜨문	드문드문		19
×뜸질	찜질	1. 더운 날의 모래밭이나 온천, 또는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묻어서 땀을 흘리어 병을 고치는 법 2. ‘뜸을 뜨는 일’의 뜻 으로서는 인정함.	25
- (이)랑		-하고, -과, -와	26
×마련통이	매련통이	미련통이	08 17
마상	마상이		16
×마술장이(魔術-)	×요술장이(妖術-)		09
마술쟁이(魔術-)	요술쟁이(妖術-)		09 26
마짓밥(摩旨-)	마지(摩旨)		16 26
×마치	망치	‘(망치보다 작은 것으로 서) 못 박는 연장’의 뜻 으로서는 인정함.	25
막걸다	맞걸다	‘막걸다’는 ‘노름판에서 가진 돈을 모두 걸고 단 판하다’의 뜻으로, ‘맞걸 다’는 ‘노름판에서 돈을 따려고 서로 돈을 걸다’의 뜻으로 인정함.	26
막걸리다	맞걸리다		26
×만양	늦모내기	1. 만이양(晩移秧)	26
	마냥	2. (고시) ×만양모→마 냥모	26
팔개미	왕개미	‘큰 개미’라는 뜻으로 모 두 인정함.	26



말거미	왕거미	전문용어로는 ‘왕개미’임. ‘큰 거미’라는 뜻으로 모 두 인정함. 전문용어로는 ‘왕거미’임.	26
말그스름하다	맑스그레하다		26
×맛대강이	맛		25
망가지다	망그러지다		26
×매기	튀기	‘수태지와 암소 사이에서 낳는다는 짐승’의 뜻으로 는 인정함.	25
매양(每-)	번번이(番番-)		26
×매줏집(賣酒-)	술집		21
매해(每-)	매년(每年)		26
×맷쌀	맷쌀	‘찢 메밀을 약간 말려 쪄 어 껍질을 벗긴 쌀’의 뜻 으로는 인정함.	17
×마련	매련		17
×마옥하다	매옥하다	어리석고 둔하다.	17
×머드레콩	그루콩	1. 그루같이로 심은 콩 2. ‘밭가로 둘러 심은 콩’ 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멍구럭	구럭	1. 새끼로 눈을 드물게 떠 서 그물같이 만든 물건 2. ‘씩 성기게 떠서 만든 구럭’의 뜻으로는 인정 함.	14 25
멋다	멈추다		26
×메토끼	산토끼(山-)		22
멧돼지	산돼지(山-)		26
멸구	며루	‘멸구’는 멸구과에 속하 는 곤충의 일종이고 ‘며 루’는 모기의 유충임.	26
×명	목화(木花)	‘무명’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16 표준어 모음

명자나무(檳榔-)	모과나무	‘모과나무’는 명자나무의 별칭임.	26
모군꾼(募軍-)	모군(募軍)		16 26
모래사장(-沙場)	모래톱		26
×모어리수에	무어리수에	거리로 다니며 짐을 치라고 외치는 소리	17
×모지다	모질다	‘성질, 일, 물건이나 모양이 모가 난 데가 있다’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목실(木-)	무명실		25
물매	못매		26
몸서리나다	몸서리치다		26
×몽깃돌	낙깃봉	‘밑물과 썰물에 뱃머리를 곧게 하기 위하여 고물에 다는 돌’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무겁한량	×무겁활량		05 17
×무겁활량	무겁한량		05 17
무식꾼(無識-)	×무식장이(無識-)		26 09
	무식쟁이(無識-)		26 09
×물앵도(-櫻桃)	물앵두		05
물앵두	×물앵도(-櫻桃)		05
몽그대다	몽개다	1. 일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짓이기다. 2. ‘제자리에서 몸을 그냥 비비다’의 뜻으로도 인정함.	26
×뿔하다	뿔하다	거북하다, 난처하다	17
미친놈	미치광이		26
밑배세장	×밑배쇠장	지계의 밑배세장 아래에 가로 박은 나무	17
×밑배쇠장	밑배세장	지계의 밑배세장 아래에 가로 박은 나무	17

×땀등스럽다	땀살스럽다	17
바깥양반(-兩班)	사랑양반(舍廊兩班)	26
바늘방석(-方席)	바늘겨레	26
×바람꾼	바람등이	25
바심	타작(打作)	26
박새	×깨새	25
박첨지놀음(朴僉知-)	×꼭둑각시놀음	(고시) ×꼭둑각시→꼭두
	꼭두각시놀음	각시 26
×반대기	반	1. 얇게 펴서 다듬어 만든 조각 14 25 2. ‘무슨 가루를 반죽한 것이나 삶은 푸성귀를 편편하고 둥글넓적하게 만든 조각’의 뜻으로는 인정함.
×반대기	소래기	굽 없는 접시와 같은 넓은 질그릇 25
×반미콩(飯米-)	밥밀콩	21
×발구	걸채	1. 소의 길마 위에 덧엮고 곡식 단을 싣는 채구 25 2. ‘산에서 쓰는 썰매’의 뜻으로는 인정함.
발뒤꾸머리	발뒤꿈치	26
발새	발살	26
발짓	발질	‘발짓’은 ‘발을 움직이는 짓’의 뜻으로, ‘발질’은 ‘발길질’의 뜻으로 인정함. 26
배넛니	젓니	26
×배춧패기	배추속대	25
백곰(白-)	흰곰	전문용어로는 ‘흰곰’만 인정함. 26
×백하젓(白蝦-)	새우젓	25

18 표준어 모음

팬덕	반덕	19
번연히	번히	16
별모	허튼모	‘모판 구역 밖에 범씨가 떨어져 자라난 모’나 ‘일 을 말막음으로 했을 때 쓰는 말’의 뜻으로도 인 정함. 26
×병태기	병태기	17
병태기	×병태기	17
별간장(別-醬)	손님장(-醬)	작은 그릇에 따로 담그는 간장 26
별맛(別-)	별미(別味)	26
×별미적다(別味-)	별미적다(別味-)	17
별미적다(別味-)	×별미적다(別味-)	17
×보리풀꺾다	보리풀하다	보리 갈 땅에 거름하기 위 하여 풀이나 나뭇잎을 베 어 오다. 25
×보사리감투	보살감투(菩薩-)	17
×보쟁기	겨리	‘보습을 낀 쟁기’의 뜻으 로는 인정함. 25
복부르다(復-)	초혼하다(招魂-)	26
×복생선(-生鮮)	복	14
복어(-魚)	복	16 26
×부레끓다	부레끓다	25
부레끓다	×부레끓다	25
×부시다	부수다	‘그릇 같은 것을 깨끗이 씻다’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부엌부엌	복슬복슬	1. 짐승이 살이 찌고 털 이 탐스럽게 많이 난 모양 25 2. ‘살찌고 탐스럽게 생 긴 모양’의 뜻으로는 인 정함.

부엌칼	식칼(食-)	26
×부절다말	부절따말	17
부절따말	×부절다말	17
×복두	부뚜	1. 타작마당에서 쓰는 돛 자리 25 2. ‘마소에 짐을 싣고 그 짐과 배를 열어서 매는 줄’의 뜻으로는 인정함.
분결(憤-)	분김(忿-, 憤-)	26
분저르다	부러뜨리다	26
불공드리다(佛供-)	공양드리다(供養-)	26
불공밥(佛供-)	퇴식밥(退食-)	26
불룩이	×불룩히	17
불친소	악대소	26
불호령(-號令)	불호령(-號令)	26
×붙여잡다	붙잡다	14 25
비단개구리(緋緞-)	무당개구리	전문용어로는 ‘무당개구 리’를 인정함. 26
×비사차기	비사치기	25
비사치기	×비사차기	25
×빚거간(-居間)	빚지시	1. 빚을 주고 쓰는 데에 중간에서 소개하는 일 25 2. ‘빚을 내고 주는 데에 중간에서 소개하는 것 을 업으로 삼는 일’의 뜻으로는 인정함.
빨갱이	×빨강이	1. 공산주의자 09 17 2. ‘빨간 빛의 물건’의 뜻 으로는 ‘빨강이’를 인 정함.
×빼주	배갈	25
×사갓집(査家-)	사돈집(査頓-)	25
사거리(四-)	네거리	26

사마귀	벼마재비	전문용어로는 ‘사마귀’를 인정함.	26
사향노루(麝香-)	궁노루		26
삯전(-錢)	삯돈	(고시) ×잔전→잔돈	26
산울림(山-)	메아리		26
×산코골다	헛코골다		25
살긋하다	셀긋하다	바르게 된 물건이 한쪽으로 일그러지다.	19
×상량대(上樑-)	마룻대		21 25
×상량도리(上樑-)	마룻대		21 25
×상재(上-)	상좌(上佐)		05
×상창(上-)	상창(上唱)	뛰어난 창(唱)	05
살바채우다	살마지르다		26
×새소리	놀소리		25
×새치름하다	새치름하다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거나 얌전한 기색을 꾸미다.	17
새치름하다	×새치름하다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거나 얌전한 기색을 꾸미다.	17
색깔(色-)	빛깔		26
×셋까맣다	새까맣다		17
×셋빨강다	새빨강다		17
×셋파랑다	새파랑다		17
×생갈이(生-)	애벌갈이	1. 논이나 밭을 첫 번 가는 일	21
×생급스럽다	새삼스럽다	2. ‘홍두깨갈이’의 준말로 ‘생갈이’를 인정함. ‘하는 짓이나 말이 갑작스럽고 뜻밖이다’ 또는 ‘끄집어내는 말이 엉뚱하고 터무니없다’의 뜻으로 인정함.	25
생김치(生-)	날김치		26
생목(-木)	당목(唐木)		26

생색나다(生色-)	낫나다		26
×생재기	생무지	1. 어떤 일에 익숙지 못한 사람	25
		2. ‘중이나 피륙 따위의 성한 곳’의 뜻으로는 인정함.	
×서분하다	서운하다	‘좀 서부렁하다’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석이버섯(石耳-, 石蕈-)	석이(石耳, 石蕈)		16
×설라문	설랑은		05
섬마섬마	따로따로따따로	어린아이가 따로 서도록 잡은 손을 놓으며 하는 소리	26
세로쓰기	내리쓰기	(고시)세로글씨/내리글씨	26
세탁비누(洗濯-)	빨랫비누		26
소갈딱지	소갈머리		26
×소금적	소금적		17
소금적	×소금적		17
소낙비	소나기		26
소변보다(小便-)	소마보다		26
소용없다(所用-)	쓸데없다		26
소피보다(所避-)	소피하다(所避-)		26
×속껍더기	속껍데기		09
속껍데기	×속껍더기		09
손때	손끝	1. 손을 대어 전드리거나 만짐으로써 생긴 독한 결과	26
		2. ‘오랜 세월 만져서 묻은 때’의 뜻으로도 인정함.	
손짐작	손어림	(고시) 눈짐작/눈어림/눈대중	26
×솔개미	솔개	(고시) ×소리개→솔개	25

22 표준어 모음

×솔갱이	솔개	(고시) ×소리개 →솔개	25
×쇠꼬창이	쇠꼬챙이		09
쇠꼬챙이	×쇠꼬창이		09
×쇠버즘	쇠버짐		17
쇠버짐	×쇠버즘		17
쇠족(-足)	쇠다리		26
쇠족솔	쇠족가마		26
×수무(手-)	수모(手母)	신부(新婦)의 보조인	05
×수이	쉬이		20
×수이보다	쉬이보다		20
×수이여기다	쉬이여기다		20
×숭이	송이		08
시골말	사투리		26
×시초잡다(始初-)	시작하다(始作-)		25
신바람	어갯바람		26
신접살림(新接-)	신접살이(新接-)		26
신편나무	신대		26
실로(實-)	참으로		26
심보(心-)	마음보		26
심술통이(心術-)	×심술통이(心術-)		08
심심파적(-破寂)	심심풀이		26
×싱경싱경하다	싱둥싱둥하다	‘방이 서늘하고 차다’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싱둥싱둥하다	싱경싱경하다	‘기운이 줄어들 만한 일을 겪은 뒤에도 본래의 기운이 있다’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짜느랴다	×짜느렁다		17
×짜느렁다	짜느랴다		17
×짜리문	사립문	‘짜리로 만든 문’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쌀긋하다	셀긋하다		19
쌍망이	×쌍맹이		09



×쌍맹이	쌍망이	09
쌍소리	상소리	19
쌍심지서다	쌍심지나다	26
쌍심지오르다		26
×씨내다	켜내다	‘글씨를 써서 내놓다’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씨다	켜다	‘조숫물이 줄거나, 권 물이 새어서 줄다’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씩정이	삭정이	1. 산 나무에 붙은 채 말라 죽은 나뭇가지 25 2. ‘씩은 물건’의 뜻으로는 인정함.
썰다	썰리다	1. 논밭을 고르게 하다. 16 2. ‘물건을 토막토막 동강치다’의 뜻으로도 인정함.
쓰레장판	쓰레받기	유지 장판으로 만든 쓰레받기 26
씨돼지	종돈(種豚)	26
아래알	×아랫알	수판의 가름대 아래의 알 17
아랫널	알대	1. 어떤 지방에서 그 남쪽의 지방을 일컫는 말 26 2. ‘전라도, 경상도를 일컫는 말’로도 인정함.
×아랫동강이	종아리	25
×아랫알	아래알	수판의 가름대 아래의 알 17
아랫중방(-中枋)	하인방(下引枋)	26
아련하다	오련하다	19
×아웃	가웃	‘말아웃’은 인정함. 17 20
아유	아이고	19
아지직	오지직	19
	아지작	19

24 표준어 모음

안개비	가랑비		26
안집	안채	안쪽의 집채	26
	주인집(主人-)		26
안해		바로 전 해	25
알금삼삼	알금숨숨		19 26
×알박이	알배기	알 배 생선	09
알반대기	지단(雞蛋, chitan)		26
×알심	고갱이	1. 초목의 줄기 가운데의 연한 심	25
		2. ‘은근한 동정심’ 또는 ‘속에 있는 힘’의 뜻으 로는 인정함.	
알약(-藥)	환약(丸藥)		26
암만해도	아무리해도		26
앙구다	결들이다	1. 한 그릇에 두 가지 이 상의 음식을 어울리게 담다.	26
		2. ‘음식 따위를 식지 않 게 불에 놓거나 따뜻한 데에 묻어 두다’ 또는 ‘사람을 안동하여 보내 다’의 뜻으로는 인정하 고 ‘암구다’(교미를 붙 이다)의 뜻으로는 인정 하지 않음.	
앞뒤같이	두벌같이		26
앞마당	앞뜰		26
×애기	아기		09
애꿎다	애타다		26
×애비	아비		09
야	애	1. 놀라거나 반가울 때 내 는 소리	26
		2. ‘예’(존대할 자리에 대	

답하거나 재쳐 묻는 말)  
의 뜻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야발단지	×야발장이		26 09
	야발쟁이		26 09
야밤중(夜-)	할밤중(-中)	‘오밤중’도 인정함.	26
약수터(藥水-)	약물터(藥-)		26
약저울(藥-)	분칭(分秤)		26
×양골뼈(陽骨-)	양지머리뼈		21
양그루(兩-)	이모작(二毛作)		26
양편쪽(兩便-)	양편짜(兩便-)	(고시) ×짜→쪽	26
어글어글하다	서글서글하다	1. 마음이 너그럽고 성질이 부드럽다.	26
		2. ‘얼굴의 각 구멍새가 널찍널찍하다’의 뜻으 로도 인정함.	
어깨동갑(-岡甲)	차치동갑(-同甲)	한 살 정도 차이 나서 동 갑이나 다름없음.	26
×어리장사	얼렁장사	1. 여러 사람이 밀천을 어 올려서 하는 장사	25
		2. ‘어리장수의 영업’의 뜻으로는 인정함.	
×어버리크다	대담하다(大膽-)		22
어스러기		옷 따위의 솔이 어스러진 곳	25
×어스러기	어스럭송아지	큰 송아지	25
어유	어이구		19
어화둥둥	어허둥둥		19
어흥이	뱀		26
×언나	어린아이		25
얼간이	얼간망둥이		26
×얼러방망이	올러방망이		17
얼룩말	얼럭말		26

26 표준어 모음

엄매	음매	소의 울음소리	26
×엄파	움파	(고지) ×동파→움파	05
영키다	영기다	‘영클어지다’의 뜻으로 인정함.	26
여린뼈	물렁뼈	전문용어로는 ‘물렁뼈’를 인정함.	26
여중(女-)	계집중		26
염문꾼(廉問-)	염알이꾼(廉-)		26
×염집	여염집(閭閻-)		05
오가피나무(五加皮-)	땅두릅나무	‘오가피나무’와 ‘땅두릅나무’는 별개임.	26
오갈피나무			26
오감하다	과감하다(過感-)		26
×오그랑쪽박	오그랑쪽박		17
×오돌오돌	오돌오돌	1. चुष거나 무서워서 몸을 떠는 모양 2. ‘삶긴 물건이 무르지 아니하여 이리저리 따로 밀리는 모양’의 뜻으로는 인정함.	08
오돌오돌	×오돌오돌	1. चुष거나 무서워서 몸을 떠는 모양 2. ‘삶긴 물건이 무르지 아니하여 이리저리 따로 밀리는 모양’의 뜻으로는 ‘오돌오돌’을 인정함.	08
오라범댁(-宅)	올케		26
오목면경(-面鏡)	오목거울		26
오삭오삭	오슬오슬	‘와삭와삭’(뻗뻗하게 마른 썰고 가벼운 물건이 서로 스치거나 부서질 때 나는 소리)의 뜻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19

×옴살	엄살	‘한 몸같이 친밀한 터’의 뜻 으로서는 인정함.	17
옴작달씩	×옴쪽달씩		17 25
왕매미	말매미	‘큰 매미’의 뜻으로 모두 인 정함. 전문용어로는 ‘말매 미’임.	26
왕벌	호박벌	‘큰 벌’의 뜻으로 ‘왕벌, 말	26
	말벌	벌’ 모두 인정함. 전문용어 로는 ‘호박벌’임.	26
왕새우	대하(大蝦)	전문용어로는 ‘대하’를 인 정함.	26
왕파리	취파리	‘큰 파리’의 뜻으로 모두 인 정함. 전문용어로는 ‘취파 리’를 인정함.	26
왜난목	내공목(內供木)	옷의 안감으로 쓰는 품질이 낮은 무명	26
왜떡(倭-)		(재래의 6모형에 대해) 네 모난 떡	25
×외발제기	외알제기	1. 굵 하나를 질질 끌어서 디디어 걷는 걸음, 또는 그러한 말이나 소 2. ‘한 발만 가지고 차는 제 기’의 뜻으로서는 인정함.	17
의상관례(-冠禮)	의자관례(-冠禮)		26
×외통목	외길목	‘장기 둘 때에 외통장군이 되는 길목’의 뜻으로서는 인 정함.	25
×원	은	‘원쪽’의 뜻으로서는 인정함.	10
요뒤	요의(褌衣)		26
용숫바람	희오리바람		26
×우그렁쪽박	우그렁쪽박		17
×우들우들	우들우들	1. 춤거나 무서워서 몸을 떠 는 모양	08

		2. ‘삶긴 물건이 무르지 아 니하여 이리저리 따로 밀 리는 모양’의 뜻으로는 인정함.	
×우명하다	의몽하다	‘물체의 면이 쪽 들어가다’ 의 뜻으로는 인정함.	17
×우집다	우접다	1. 뛰어나게 되다, 선배를 이기다. 2. ‘남을 업신여기다’의 뜻 으로는 인정함.	17
우표딱지(郵票-)	우표(郵票)		16
움막집(-幕-)	움막(-幕)		16 26
×움파리	움막	‘우묵하게 들어가서 물이 썩 곳’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웃넉	윗넉		12
×웃알	×위알	수판 가름대 위의 알	12
	윗알		12
×위알	×웃알	수판 가름대 위의 알	12
	윗알		12
윗집	×웃집	위쪽으로 이웃해 있는 집 또 는 높은 지대에 있는 집	12
으끄러지다	몽그러지다	‘굳은 물건이 눌러서 부스러 지다’의 뜻으로도 인정함.	26
	으츠러지다		26
으밀아밀	×으밀으밀	남 모르게 이야기하는 모양	17
×으밀으밀	으밀아밀	남 모르게 이야기하는 모양	17
×으시대다	으스대다		17 11
×-을런고	-을런가		17
-을진댄	-을진대		26
음지쪽(陰地-)	×음지 짝(陰地-)	1. (고시) × 짝→쪽 2. ‘응달쪽’도 인정함.	25
이맛전	이마		16 26
이면치레	면치레		16 26
×이몽가몽(-夢-夢)	바몽사몽(非夢似夢)		25

×이영꼬챙이	이영꼬챙이		09
이영꼬챙이	×이영꼬챙이		09
×이주걱부리다	×이기죽부리다	(고시) 이기죽거리다/이죽거리다	25
×잇살	잇몸	‘잇몸의 틈’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잎전	엽전(葉錢)		22 25
×자	재	저 아이	17
×자깍스럽다	잡상스럽다	1. 난잡하여 상되다. 2. ‘젊은 사람이 지나치게 늙은이의 흉내를 내어 깍적하다’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자두나무	×오얏나무	(고시) ×오얏→자두	20
자옥하다	자옥하다		19
작은집	×적은집	1. 첩 또는 첩의 집 2. ‘따로 사는 아들 또는 아우의 집’의 뜻으로도 인정함.	25
×잔생이	지저리	1. 아주 몹시, 지긋지긋하리만큼 2. ‘지긋지긋하게 말을 듣지 않거나 애걸복걸하는 모양’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잔털머리	잔판머리	일의 끝판	25
×잘량하다	알량하다		17 25
×장쪽박	장쪽박		17
×재리	손잡손	1. 좀스럽고 알망곳은 손잡난 2. ‘나이 어린 땅꾼’ 또는 ‘몹시 인색한 사람을 욕하는 말’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재미중(齋米-)	동냥중	동냥 다니는 중	26

×저	쉬	1. 닭, 참새 따위를 쫓을 때 내는 소리 2. ‘미처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내는 소리’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저지난달	지지난달	‘이삼 개월 전의 달’의 뜻으로는 인정함.	17
×저지난밤	지지난밤	‘이삼 일 전의 밤, 엇그제 밤’의 뜻으로는 인정함.	17
×저지난번(-番)	지지난번(-番)	‘지난번의 전번’의 뜻으로는 인정함.	17
×저지난해	지지난해	‘이삼 년 전의 해’의 뜻으로는 인정함.	17
저편(-便)	저쪽	(고시) 편/쪽	26
전나귀		다리를 저는 나귀	
×전마춤(塵-)	×전마침(塵-)		17
	전맞춤(塵-)		17
×전마침(塵-)	×전마춤(塵-)		17
	전맞춤(塵-)		17
전전달(前前-)	지지난달		26
제비꽃	오랑캐꽃	전문용어로는 ‘제비꽃’을 인정함.	26
×제비추리	제비초리	1. 뒤통수나 앞이마에 뽕족이 내민 머리털 2. ‘소의 안심에 붙은 고기의 한 가지’의 뜻으로는 인정함.	17
×조개불	보조개	1. (고시) 불우물/보조개 2. ‘조가비 형상 비슷이 가운데가 도도룩하게 생긴 두 불’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조롱조롱	조랑조랑		19
×조르개	조리개	1. 사진기의 ~	17



		2. ‘물건을 즐라매는 데 쓰 는 가는 즐’의 뜻으로는 인정함.	
조리개	×조르개	1. 사진기의 ~	17
		2. ‘물건을 즐라매는 데 쓰 는 가는 즐’의 뜻으로는 ‘조르개’를 인정함.	
종부돋움	발돋움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 올 리는 일’의 뜻으로도 인정함.	26
종중논(宗中-)	종답(宗畓)		26
종중밭(宗中-)	종전(宗田)		26
주꾸미	꿀뚜기	‘주꾸미’는 낙지과에 속하 는 연체동물의 일종으로 ‘꿀 뚜기’와는 별개임.	26
×주두라지	주둥아리	‘말씨’의 낮은말로는 인정 함.	25
×주럽	주첩	1. 여러 가지 탓으로 생물 체가 쇠하여지는 상태	25
		2. ‘피로하여 고단한 증세’ 의 뜻으로는 인정함.	
주살나다	뵤찢나다		26
죽젓개(粥-)	죽젓광이(粥-)	죽 썰 때 젓는 방망이	26
죽지뼈	어깨뼈		26
중바랑	바랑		16 26
쥐좃갈다	쥐뿔갈다	아주 보잘것없다.	26
×지딱총(紙-銃)	딱총(-銃)		14 25
지렛대	지레		16 26
×지어땡이	짓고땡	(고시) ×지어땡→짓고땡	25
지정다지다(地釘-)	터다지다	건축물 등의 지반을 단단하 게 하려고 지정을 박아 다 지다.	26
×지지콜콜이	시시콜콜히		17
×지천	지칭구	1. 까닭 없이 남을 원망하	25

		는 것	
		2. ‘꾸지람’의 뜻으로는 인정함.	
×진대	땀	‘남에게 기대어 땀을 쓰다 시피하여 괴로움을 끼치는 짓’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진신발	진발	1. 진창에서 더러워진 발 2. ‘진창에 젖은 신’의 뜻으로는 인정함.	14 25
진탁(眞-)	친탁(親-)		26
질근질근	질경질경	1. 질긴 것을 씹는 모양 2. ‘새끼, 노 따위를 느릿느릿 꼬는 모양’의 뜻으로도 인정함.	19
×짐대	뚝대	‘당(幢)을 달아 세우는 대’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짓웃	깃웃		26
잘끔거리다	짜뜰름거리다	1. 한목에 주지 않고 조금씩 주다 말다 하다. 2. ‘연하여 잘끔하다’의 뜻으로도 인정함.	26
쪽빛	남빛(藍-)		26
찌그럭거리다	지그럭거리다		19
절레	절레나무		16 26
차인꾼(差人-)	차인(差人)		16 26
×창칼	찬칼	1. 반찬 만드는 칼 2. ‘여러 작은 칼의 총칭’의 뜻으로는 인정함.	17
×채변	주변	1. 일을 주선하거나 변통하는 재간 2. ‘남이 무엇을 줄 때 사양하는 일’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채삼꾼(採蓼-)	삼마니		26
채소밭(菜蔬-)	남새밭		26
×채송아	채송화(菜松花)		05
×책술(冊-)	책실	1. 책을 매는 데 쓰는 실	17
		2. ‘책의 두꺼운 정도’의 뜻 으로서는 인정함.	
천덕구니(賤-)	천더기(賤-)		26
천덕꾸러기(賤-)			26
×침대(簾-)	침대	1. 침을 치는 데 쓰는 대오 리	17
		2. ‘포개 놓은 틈에 끼워서 무엇을 포하는 데 쓰는 얇 은 댓조각’의 뜻으로서는 인 정함.	
×침더기(妾-)	×침대기(妾-)	침(妾)	25
×침대기(妾-)	×침더기(妾-)	침(妾)	25
×침어미(妾-)	서모(庶母)	‘침장모(妾丈母)’의 뜻으로 는 인정함.	25
×첫물	말물	1. 맨 처음 난 푸성귀	25
		2. ‘옷을 새로 지어 입고 빨 때까지의 동안’의 뜻으로 는 인정함.	
초벌	애벌		26
촉촉이	×촉촉히		17
×촉촉히	촉촉이		17
촌맹이(村氓-)	촌맹(村氓)	시골에 사는 백성	16 26
총결다(銃-)	×총결다(銃-)		25
×총결다(銃-)	총결다(銃-)		25
×추다	추리다	1. 가려내다	25
		2. ‘숨은 물건을 찾아내려 고 뒤지다’의 뜻으로서는 인 정함.	
치리	은어(銀魚)	‘치리’와 ‘은어’는 별개임.	26

	쏘가리	‘치리’와 ‘쏘가리’는 別개	26
×콩기름	콩나물	‘콩에서 搾낸 기름’의 뜻으	25
		로는 인정함.	
콩더콩	×콩덕콩		17
×콩덕콩	콩더콩		17
크낙새	골락새	전문용어로는 ‘크낙새’를	26
		인정함.	
×큰어미	큰계집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큰어	25
		머니를 부르는 말’로는 인	
		정함.	
×키장다리	키다리		25
탁방나다(挾榜-)	방나다(榜-)	시험에 급제한 사람의 성명	16
		이 발표되다.	
턱받이	×턱받기	어린이의 턱 아래에 대어	25
		주는 형질	
톱칼	거도(鋸刀)		26
판수	소경	‘점치는 것을 엮으로 삼는	26
		소경’의 뜻으로도 인정함.	
팔모(八-)	여덟모	팔각(八角)	26
×팩성(-性)	팍성(復性)	(고시) ×괴팍하다, ×괴팍	05 10
		하다→괴팍하다	
평화스럽다(平和-)	평화롭다(平和-)		26
폐꾼(弊-)	폐객(弊客)		26
×푸나무	풋나무	1. ‘새나무, 갈잎나무, 풋	17 25
		장’의 총칭	
		2. ‘풀과 나무’의 뜻으로는	
		인정함.	
푸시시	부스스		26
푼내기	푼거리	1. 땀나무를 작게 묶어서 몇	26
		푼의 돈으로 매매하는 일	
		2. ‘몇 푼의 돈으로 하는 조	
		그만 내기(노름)’의 뜻으	

## 로도 인정함.

풀소	×풀소	17 25
풀소가죽	×풀소가죽	17 25
풀소고기	×풀소고기	17 25
×풀소	풀소	17 25
×풀소가죽	풀소가죽	17 25
×풀소고기	풀소고기	17 25
풍구(風-)	풀무	1. 불을 피우는 데 바람을 일으키는 제구 2. ‘바람을 일으켜서 곡물로부터 쪽정이 따위를 제거하는 기구’의 뜻으로도 인정함. 26
풍석질(風席-)	부뚜질	뜻자리로 바람을 일으켜 곡식에 섞인 티끌 따위를 날리는 일 26
×핀둥이쪼이다	핀잔먹다	25
×핀둥이주다	핀잔주다	25
×하마하마	하마터면	‘무슨 기회가 자꾸 닥쳐오는 모양’의 뜻으로는 인정함. 25
×해망적다	해망쩍다	충명하지 못하고 아둔하다. 17
해망쩍다	×해망적다	충명하지 못하고 아둔하다. 17
해발쪽하다	×해발쪽하다	08
×해발쪽하다	해발쪽하다	08
헌식돌(獻食-)	시식돌(施食-)	잡귀에게 밥을 주며 경문을 읽는 곳 26
×힘집	힘집(欠-)	(고시) 힘가다/힘나다/힘지다 05 17
헛불놓다	헛방놓다	26
혐의스럽다(嫌疑-)	혐의쩍다(嫌疑-)	26
×형제주인어멈 (兄弟主人-)	쌍동중매(雙童仲媒)	25
호랑나비	범나비	전문용어로는 ‘호랑나비’를 26

×호래비쭈	홀아비쭈	인정함. 쟁기의 한 마루에 가로 꿰 어 아래 덧방을 누르는 작 은 나무	09
호래자식(-子息)	호래아들		26
×호로로	호르르	1. 날짐승이 나는 소리, 종 이가 타는 모양 2. ‘호루라기나 호각 따위 를 부는 소리’의 뜻으로 는 인정함.	08
×호루루	호로로	호루라기나 호각 따위를 부 는 소리	08
호색꾼(好色-)	색골(色骨)		26
흑대패	뒤대패		26
×홀치다	훤이다	‘벗어나거나 풀리지 못하게 조치하거나 동이다’의 뜻으 로는 인정함.	25
×홀꺾더기	홀꺾테기		09
홀꺾테기	×홀꺾더기		09
×화라지	활대	1. 돛 위에 가로 댄 나무 2. ‘옆으로 길게 뺏어나간 나뭇가지를 뺏나무로 <small>뺏</small> 이 르는 말’로는 인정함.	25
×화숙(火-)	화전(火田)		25
화약심지(火藥心-)	화승(火繩)	‘도화선(導火線)’도 인정함.	26
활쭈통	쭈통	활의 한가운데로, 손으로 잡 는 부분	26
활쩍	활짝	1. 다만 ‘활짝’의 뜻 가운 데 ‘밥 따위가 무르녹게 퍼진 모양’의 뜻으로는 인 정하지 않음. 2. ‘너른 들 등이 매우 시 원하게 벌어진 모양’의 뜻	26

황철나무	백양(白楊)	으로도 인정함. 전문용어로는 ‘황철나무’를 인정함.	26
×회춤	골목	‘회춤’ (처마가 7자형으로 꺾여 굽어진 곳)의 뜻으로 도 인정하지 않음.	25
후례자식(-子息)	후례아들		26
훗날(後-)	뒷날		26
훗일(後-)	뒷일		26
훗쩍	훗쩍	1. 다만 ‘훗쩍’의 뜻 가운 데 ‘밥 따위가 무르녹도 룩 퍼진 모양’의 뜻으로 는 인정하지 않음. 2. ‘들 따위가 아주 시원스 럽게 벌어진 모양’의 뜻 으로도 인정함.	26
흙메	토산(土山)		26
×희나리	희아리	1. 조금 상해 말라서 희끗 희끗하게 얼룩이 진 고추 2. ‘덜 마른 장작’의 뜻으 로는 인정함.	17

## 2. 발 음

### 1) 장 단

표 제 어	비 고
가 : 땅다	매우 감다.
가 : 땅다	하도 멀어서 눈이나 생각이 미치기 어렵다.
가 : 매지다	
가불가불	
가불거리다	
갈 : 물이[-무지]	
감 : 들[-똥]	
개 : 꿀	
개 : 나리	야생나리도 ‘개 : 나리’임.
개 : 지	버들개지
개 : 판	무질서하고 난잡한 상태
거랑꾼	
거령맞다	
거령스럽다	
거령스레	
거망빚[-뻘]	썩 질개 검붉은 빛깔
거불거리다	
거불거불	
거붓거붓	
건 : 너다보다	
건 : 너대다	
건 : 녃방(-房)	
건 : 녃집	



걸	웃놀이 용어
걸 : 터앉다	
겜 : 덕귀신(-鬼神)	얼굴이나 옷이 몹시 더러운 사람
겟 : 국	
겨 : 낭내다	
견지	낙시질에 쓰는 납작한 얼레
계 : 면떡	무당이 굿을 끝내고 구경꾼들에게 나누어 주는 떡
고리	고려하게
고살	
고 : 얹늬	
골 : 라내다	
골 : 라잡다	
곰 : 살꺼다	몹시 보채다.
괵 : 쥐	
관 : 두다	
관자놀이	
팔 : 하다	1. 풀기가 너무 세다. 2. 성결이 있고 급하다.
광 : 뜨다	연의 중앙에 뚫린 방구멍을 오려 내다.
괵찮다	
괵찮이	
괵 : 다	광맥 노석(露石)이 치밀하지 못해 금분(金分)이 적은 듯하다.
괴 : 불	1. 괴불주머니 2. 단청의 주림에 달린, 술 같은 무늬
괴 : 불주머니[-쭈-]	
군 : 두드러기	장농문의 장식용의 둥그스름한 나무
굴 : 개(窟-)	썩은 물이 된 곳의 바닥에 처진 개흙
굴 : 다	못 살게 ~.
굴 : 대[-때]	
굴 : 때장군	키가 크고 몸이 남달리 뚱뚱한 사람
굴렁대[-때]	
굴렁쇠	

굽갈리다

긷 : 것

그 : 네뒤다

그리

그곳으로, 그쪽으로

기 : 다랗다

기 : 다말다

기 : 닿다

길

품질의 좋고 낮은 등급

길 : 다랗다

김 : 내기

증산작용

까 : 말다

까 : 매지다

까칠하다

까치하다

깨 : 다

알을 깨게 하다(‘까다’의 사동).

깨끔

깨끔

까룩까룩

꺼 : 떨다

꺼지다

불이 ~.

꺼지다

땅이 ~.

꺼치하다

꿈 : 바르다

도량이 좁고 인색하여 박하다.

꿈 : 바리

꿈바른 사람

꿈숫달

연의 가운데 길이로 붙이는 작은 대

꼭

꼭꼭

꿀꿀

돼지가 우는 소리

공공

아픔이나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저절로 내는

소리

공공거리다

끝 : 어당기다

고시(표준 발음법) 끝 : 다

끝 : 영창(-映窓)[-령-]

고시(표준 발음법) 끝 : 어

람 : 다  
 내 : 걸다  
 내 : 달리다  
 내 : 떨다  
 내 : 쌓다  
 내 : 친걸음  
 내 : 친김에  
 내 : 키다  
 녀 : 장거리  
 널 : 판때기  
 념 : 다  
 노랑  
 노름  
 노름꾼  
 노름빚 [-빘]  
 노름판  
 노름패  
 노상  
 노 : 총  
 뇌 : 랑다  
 뇌보  
 누 : 령다  
 누 : 레지다  
 누 : 르다  
 누리  
 누리다  
 누치  
 뇌 : 령다  
 단 : 거리  
 단 : 나무  
 단지  
 단 : 지럽다  
 달 :

1. 언제나    2. 변함없이  
 기밀을 남에게 통하지 않아야 될 일

천하고 더러운 사람

힘껏 ~.

우박

행복을 ~.

물고기 이름

단으로 묶어 말린 잎나무

단으로 묶어 파는 뽕나무

항아리의 한 가지

말이나 행동이 다릅다.

풀 이름

달달

~ 뷁다.

달 : 라다

담 : 배통받침

대견하다

대견히

대뜸

대 : 머리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대야

대 : 장

대장장이

대 : 장간[-깐]

대 : 장일[-널]

대 : 장장이

덜덜

추워서 몸을 떠는 모양

덜리다

‘덜다’의 피동

덜 : 먹다

하는 짓이 온당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함부로 나가다.

덤덤하다

덤덤히

덩돌하다

매우 둔하다.

땡땡

쇠붙이를 두드릴 때 나는 소리

도 : 끼

도 : 지다

1. 매우 심하고 호되다.

2. 몸의 부분이 단단하다.

돌 : 개바람

돌 : 계집

석녀(石女)

동차아치

밥 짓는 일을 하는 계집 하인

뒤 : 꾸머리

뒤 : 꿈치

뒤 : 넘기치다

뒤로 넘겨뜨리다. 뒤집어 었다.

뒤 : 따르다

뒤 : 떨어지다

뒤 : 받다

반항하다

뒤 : 울

가족신 따위의 뒤축의 신을

뒤 : 통수

뒷 : 소문(-所聞)

들들

갈거나 뒤지는 모양

딱

땅꾼

때꾼하다

떨 : 감[-깎]

떨 : 거리[-꺼-]

떨 : 나무

떨 : 나무꾼

떠 : 들다

떠죽거리다

떠죽떠죽

뺨 : 디뺨다[떨 : 떠떨따] 몹시 뺨다.

뺨 : 은맛

떼꾼하다

떼 : 치다

1. 달라붙는 것을 떼어 놓아서 물리치다.

2. 거절해 물리쳐 버리다.

뚜뚜

기적이거나 나팔 따위를 연해 부는 소리

명하다

말 :

툽질할 때나 먹을 그을 때 그 밑에 받치는 나무

말 : 장다

말 : 개지다

매 :

몹시 심한 정도로

멤 : 돌다

면 : 물

덕을 수 있는 우물물

멀거리

정신 없이 보고 있는 모양

멀 : 쟁다

멀 : 개지다

명 :

무명

모 : 기

모 : 기떼

모 : 기발순(-發巡)[-쑈] 어둑어둑할 무렵 모기떼가 소리치면서 웅웅도

는 일

모 : 기장(-帳)

모 : 기향(-香)

모 : 깃불

모 : 든

모 : 래

모 : 루

대장간에서 쇠를 불릴 때 쓰는 쇧덩이

모 : 루채

모지락스럽다

모쫂룩

몰 : 라보다

못 : 생기다

미 : 달이[-다지]

(경험에서 얻은) 묘한 이치나 요령이 생기다.

미 : 립나다

미투리

밀가루[-까-]

밀가루나 밀기울로 반대기를 지어 쥘 떡

밀개떡

밀가루로 만든 국수

밀국수

밀기울[-끼-]

밀이 병들어서 새까맣게 된 이삭

밀깜부기

밀가루를 꿀물에 반죽하여 익히지 아니한 날떡

밀떡

1. 둥글넓적이 몽친 밀덩이

밀뜰래

2. 길들거나 살져 윤택한 물건의 비유

밀범벅

밀가루에 청등호박과 청대콩 등을 섞어 만든 범벅

밀보리

밀과 누룩으로 곤 소주

밀소주(-麴酒)

밀가루를 물에 반죽해 끓는 물에 떼어 넣고 익힌 음식

밀수제비

밀쌈

밀전병에 나물, 고기, 사탕, 깨소금으로 소를 넣은 음식

밀전병(-煎餅)

밀가루로 만든 전병

밀짚[-짚]

밀천신(-薦新)

밀푸러기

밀풀

바 : 라춤(婆囉-)

바 : 래다

반베

반 : 부새

반 : 비알지다

반색하다

반지기

발간

발강

발 : 리다

방 :

방 : 구

방 : 동구부렁이

방 : 이다

배 : 꼬다

배 : 래기

배 : 줍다

배 : 틀어지다

땀 : 띠

땀 : 해

뱅

뱅뱅

뱅 : 충이

벽벽

별경

별 : 쥘다

별 : 게지다

베갯잇[-널]

벼르다

햇밀가루로 부친 밀전병으로 지내는 고사나 제사

국에 밀가루를 풀어 만든 음식

밀가루로 쏜 풀

1. 빛이 변하다.

2. 빨래 같은 것을 별에 쬐어 희게 하다.

말이 조금 거칠게 달는 일

약간 비탈지다.

쌀 따위에 잡것이 많이 섞인 상태

~ 거짓말

옷판의 한가운데의 발 이름

농악기

방동이가 구부러진 짐승

(옷놀이에서) 말을 방에 놓다.

1. 물고기의 배의 부분 2. 옷소매의 아래 부분

비례에 맞춰서 여러 몫으로 나누다.

보 : 매

언뜻 보기에

보 : 양다

보 : 애

보 : 애지다

보조개

본데

보아서 배운 범절이나 지식 또는 솜씨

본데없다

보아서 배운 것이 없다.

본데없이

볼 : 기작얼레

볼

‘볼’ (방귀 소리, 경적 소리, 날개 떠는 소리 등)의 작은 말

부라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하는 데 불을 불라는 소리  
부라질을 시킬 때 쓰는 말

부라부라

부라질

부리

새나 짐승의 주둥이

붕

방귀 소리, 경적 소리, 날개 떠는 소리 등

붕붕

붕 : 어연적(-硯滴)

붕 : 어자물쇠[-쇠]

붕 : 어죽(-粥)

붕 : 어툽

비 : 싸다

1. 마음에 당기면서도 사양하는 체하다.

2. 어울리기 싫어하다.

비 : 통

품질이 아주 낮은 백통

빼 : 다

내빼다

뺨 : 히

뺨 : 다

뺨으로 물건의 길이를 재다.

뺨 : 치

길이가 한 뺨쯤 되는 물건, 또는 그런 물고기

뽀 : 양다

뽀 : 애지다

뿌 : 열다

뿌 : 애지다

뽕



뽕뽕

뽕뽕

삐걱삐걱

사느랴다

사박스럽다

상고대

상 : 수리

색색거리다

서느렁다

서 : 투르다

석 : 동

석 : 동무니

석석

션 : 달받이 [-바지]

성냥하다

성대

세 :

세 : 셋덩이

세 : 코짚신

셈 : 제기

셋 : 붙이 [-부치]

소 : 루쟁이

소박이

소박이김치

소태

속 : 내다

손살 [-싼]

숫 : 대

쇠 : 기침

쇠 : 꼬리채

방귀를 자꾸 꺾는 소리

자동차의 경적 소리

성질이 독살스럽고 당돌하여 함부로 간섭하기를 좋아하다.

서리가 나무에 내려 눈처럼 된 것

상수리 나무의 열매

(숨이 가빠서) 자꾸 가늘게 쉬다.

물체의 온도나 기후가 차가울 만큼 서늘하다.

웃놀이에서 세 번째 가는 동

웃놀이에서 석동을 한데 어울려 가는 말

거침없이 가볍게 비비거나 쓸거나, 종이 등을 연해 베는 소리

쇠를 붙에 붙인다.

물고기 이름

김멜 때에 흙을 떠서 앞으로 얹는 덩어리

한편에 잇달아 찬 수효로 승부를 정하는 제기 놀이

개피떡 세 개를 붙여 만든 떡

대패와 끌의 등을 갈아서 새로 날이 서게 하다.

손가락 사이

오래 되어 쇠 기침

배틀에 딸린 기구

쇠 : 죽(-粥)

쇠 : 죽가마(-粥-)

쇠 : 죽물(-粥-)

쇠 : 죽바가지(-粥-)

쇠 : 코뚜레

쇠팔

순 : 되다[-떠-]

숨 : 기척[-끼-]

숨 : 넘어가다

숨 : 소리[-쏘-]

승승

쉬

쉬슬다

쉬파리

시위

시장시장

시장하다

실 : 다

실망초(-草)

싸다듬이

쌩

씨느렁다

씨 : 레질

씩

췌

쓱쓱

쓱쓱거리다

쓱쓱쓱

아 : 른스럼다

아 : 무래도

아 : 무리면

아 : 무리하다

아 : 무런들

팔의 일종

순실하게 되다.

1. 들성들성 씨는 모양 2. 구멍이 뚫린 모양  
파리의 알

활시위

어린아이를 시장할 때 부르는 소리

풀 이름

몽둥이로 함부로 뚜드리는 것

세찬 바람이 나뭇가지에 부딪혀 나는 소리

문을 ~ 열다.

아이가 몸을 다쳐 아파할 때, 만지며 위로하는 소리

툽질할 때 나는 소리

툽질이나 즐질할 때 나는 소리

아 : 무렇게  
 아 : 무렁다  
 아 : 무려나  
 아 : 무려면  
 아 : 무렵

악대

불간 소

악대말

악대소

악대양

안 : 채다

1. 앞으로 들이치다. 2. 말아서 당하게 하다.

알알하다

암 : 만

집값이 ~, 논값이 ~이다.

앙앙거리다

앙앙하고 울다.

애 :

1. 초조한 마음 속 2. 수고로움

애 : 꿩다

애끝

큰 끝

애 : 꿩다

애 : 늙은이

애달프다

애당초(-當初)

재물과 이익에 탈탈하게 덤비다.

애바르다

애바리

애 : 벌레

분나고 성나는 감정

애 : 성이

야릇하다

애 : 기

이야기

어 : 르다

아이틀 ~.

어 : 중이

어중되어 쓸모없는 사람

억 : 새

플 이름

억 : 새받지기

억새가 많이 섞인 풋장

언 : 제나

언 : 제든지

얼 : 어듣다

얼 : 어맞다

얼 : 어떡다

얼 : 은잠방이

얼얼하다

얼입다(孽-)[-립-]

엄 : 대[-때]

엄 : 대질[-때-]

엄발나다

엄살떨다

엷 : 이하다

엷 : 덩머리

엷 : 덩방아

엷 : 덩이

엷 : 덩잇바람

엷 : 덩잇짓

엷 : 덩춤

엷 : 덩판

에루화

엔 : 담

여 : 낙낙하다

여 : 쭈웁다

열

열 : 기[-끼]

영 :

오 : -

오 : 갈피

오 : 갈피나무

오 : 갈피술

오 : 감스럽다

오 : 두방정

오 : 라

오 : 라지다

오 : 랫바람

남의 허물로 인하여 해를 받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 때 물건 값을 포함하는 막대기

벗나가는 태도가 있다.

노래할 때 즐거움을 나타내는 소리

사랑으로 땡 둘러서 쌓은 담

성미가 온화하고 상냥하다.

층열

눈동자에 드러나는 정신의 담찬 기운

이영

을-

한약재 이름

몹시 방정맞은 행동

죄인이 손을 오라로 묶이어 뒷짐을 지다.

오라를 차고 나선 포졸의 위풍

오 : 로지	
온 : 갖	
온 : 공전(-工錢)	전액을 한목에 다 주는 공장(工匠)의 품값
온 : 밤	온하룻밤
온 : 새미로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전체의 생긴 대로
온 : 이로	전체의 것으로
온 : 장(-張)	종이나 피륙 등의 온통의 조각
온 : 종일(-終日)	
온 : 채	집채의 전체
온 : 챗집	한 채를 전부 쓰는 집
온 : 통	
온 : 폭(-幅)	
온 : 품	온하룻일의 품
올 : -	열매가 보통 것보다 일찍 익는
올 : 곡하다	실이나 줄 같은 것이 너무 꼬여서 비비 틀려 있다.
옴 : 살	한 몸같이 친밀한 사이
옹 : 생원(-生員)	
왕	말이나 소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
왜	1. 왜가리 등이 우는 소리    2. 게워 내는 소리
왜왜	1. 소리 지르는 모양    2. 게워 내는 소리
	3. 짐승 등을 쫓는 소리
꽤꽤거리다	
꽤꽤	소리를 높이고 길게 뿜아서 글을 읽는 소리
외지다	
윙	
윙윙거리다	
용 : 심	남을 시기하는 심술
용 : 심꾸러기	
용 : 심부리다	
용 : 심쟁이	
우수	일정한 수 밖에 더 받는 물건
우수리	

우 : 습게보다

우 : 습다

우 : 주다

우즐거리다

우즐우즐

우 : 짓다

웃 : 다

원

웁웁

웁웁거리다

웁 :

웁 : 만큼

웁 : 만하다

웁웁

윙

윙윙

윙윙거리다

유 : 난히

유 : 착하다

윙뚝뚝이

윙 : 포(-布)

응가

응가

응응

이듭

이 : 미

이악하다

일 : 고통[-꼬-]

잉잉

자

잔 : 작하다

잘 : 토시

장사판에서 이를 남겨 주다.

온몸을 율동적으로 멋있게 움직이다.

울어 지저귀다.

뜻밖의 일이나 놀라울 때나 마음이 언짢을 때 하는 말

기를 쓰며 연해 고향지르는 소리

어찌된, 어떠한

매우 투박하고 크다.

저만 잘나고 영리한 체하는 사람

무당들이 쓰는 짧은 베

(명사) 어린애에게 똥을 누일 때 하는 소리

(부사) 어린애에게 똥을 누일 때 하는 소리

연해 ‘응’ 소리로 대답하는 모양

마소의 두 살

이왕에

이욕에만 정신이 있다.

어린애가 잇달아 우는 소리

주의를 환기시키는 소리

나이에 비해 늦되고 용렬하다.

잘을 붙여 만든 토시

잡 : 잡다	
장부	이쪽 끝을 저쪽 구멍에 맞추기 위해 다소 가늘게 만든 곳
장부꾼	가래질할 때 가래장부를 잡는 사람
장아찌	
쟁 :	재양(載陽)
저기	
저리	저곳으로, 저쪽으로
절 : 나귀	다리를 저는 나귀
점 : 하다	점직하다
조금	정도나 분량이 적게
조 : 대	대나 진흙 따위로 담배통을 만든 담뱃대
조 : 림	물고기 아가미에 있는 호흡기관
조리	저리
조 : 쌀스럽다	조쌀한 데가 있다.
조 : 쌀하다	노인의 얼굴이 깨끗하고 조출하다.
졸들다	발육이 부진하고 주접이 들다.
졸졸거리다	
죄어들다	
지나가다	
지나다	
지나치다	
지난가을	
지난겨울	
지난날	
지난달	
지난밤	
지난번(-番)	
지난봄	
지난여름[-너-]	
지난해	
지날결[-결]	
지 : 내보다	

54 표준어 모음

지 : 치다

진 : 물

진배없다

진배없이

짓 : 굿다

작

작작

작작

작작거리다

작작거리다

찰찰

찰찰

쪽

쪽쪽

쪽쪽

작

작작

찰찰

찰찰거리다

쪽

쪽쪽

쪽쪽

찍

찍

찍찍

찍찍

찍찍

찍찍거리다

찰찰

찰

찰찰

얼음을 ~.

부스럼에서 흐르는 물

1. 활짝 벌어진 모양    2. 입맛을 다시는 소리

입맛을 다시는 소리

1. 신을 끄는 소리

2. 획을 함부로 긋거나 종이를 찢는 소리

입맛을 다시다.

1. 신을 끌다.

2. 획을 함부로 긋거나 종이를 찢다.

이리저리 채신없이 바빠 쏘대는 모양

왜 ~ 울고 있니?

~ 읽다.

종이등을 한 번 찢는 소리

뚱, 오줌 등을 내깔기는 모양

종이를 연해 찢는 소리

참새 등이 우는 소리

뚱을 연방 내깔기는 모양

물건이 잘 달라붙는 모양

일을 ~ 해치우다.



찬 : 찬하다	동작이 급하지 않고 편안하며 느리다.
찬 : 찬히	편안하며 느리게
채득	채그릇의 한 가지
채던	부드럽게 다루어 만든 당나귀 가죽
척척	일을 질서 있고 익숙하게 하는 모양
천 : 천하다	일이나 동작이 급하거나 거칠지 않고 편안하며 느리다.
천 : 천히	
최활	베를 짜 나가는 데에 가로넓이를 버티는 가는 나무 오리
추기	추깃물
추깃물	송장이 썩어 흐르는 물
탄 : 하다	1. 참견하다 2. 시비조로 나서다.
태가다	질그릇이나 놋그릇에 깨진 금이 나다.
퇴마냥	1. 아주 늦게 심은 모 2. (고시) 늦모/마냥모
파 : 랑다	
파 : 래지다	
패다	마구 때리다.
패 : 다	‘파다’의 피, 사동
퍼 : 레지다	
품다	모시풀의 껍질을 품칼로 벗기다.
피리	악기 이름
하	입김 내부는 소리
하 : 양다	
하 : 애지다	
한 : 배	(국악에서) 곡조의 장단, 화살이 미치는 한도
해	내 ~, 뒤 ~
해 :	하여
해 : 라하다	손아랫사람에게 ‘해라’의 말씨를 쓰다.
해망쩍다	총명하지 못하고 아둔하다.
해 : 찰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부질없이 물건을 해치는 것
해 : 찰긋다	

해 : 찰스럽다

해 : 찰하다

행 : 짜

행 : 티

허

허 : 닥하다

허술하다

허술히

허 : 열다

허 : 예지다

헤적거리다

헤죽거리다

헤죽헤죽

혀

흔 : 솔

활활

후출하다

일에는 정신을 두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하다.

심술을 부리어 남을 해치는 행위

행짜를 부리는 버릇

희로애락의 감정을 나타내는 소리

모아둔 물건이나 금전 등을 털어서 쓰기 시작하다.

활개를 벌리어 가볍게 저으며 걷다.

활개를 벌리어 저으며 걷다.

흙길로 꿰맨 옷의 솔기

뱃속이 비어 먹고 싶은 감이 있다.

## 2) 경 음

표제어

가슴살[-쌔]

가슴속[-쪽]

가을보리

간대[-때]

갱 : 생사위(更生-)[-싸-]

겨울잠[-잠]

경스승(經-)[-쓰-]

고 : 샷고기(告祀-)

괴 : 불주머니[-쭈-]

비 고

가슴에 붙은 살

긴 대로 만든 장대

죽을 고비를 지나 살아날 운명

불경의 뜻을 풀이하는 법사

구뚫주걱  
 국숫분  
 국숫분통  
 굴 : 다리[-따-]  
 그믐밤[-빔]  
 깔유리(-琉璃)[-류-]  
 날다람쥐[-따-]  
 날단거리  
 날담비[-땨-]  
 날샷쑤[-씩-]  
 날숨[-쑤]  
 날장구[-짱-]  
 농 : 지거리(弄)[-찌-]  
 눈 : 사람[-싸-]  
 단 : 거리  
 달걀가루[-까-]  
 돈 : 벼락맞다[-뻬-]  
 돈 : 지랄[-찌-]  
 돌 : 비늘[-뻬-]  
 동 : 냥중[-쑤]  
 들 : 국화(-菊花)  
 등배운동(-運動)  
 등짐[-짐]  
 등짐장수[-짐-]  
 딱장대[-뻬]  
 땀수건(-手巾)[-쑤-]  
 마름자  
 말굽  
 말굽자석(-磁石)  
 말굽추너  
 망 : 령되다(妄靈-)[-뻬-]  
 망 : 령되이(妄靈-)[-뻬-]

국수들의 한 부분

내쉬는 숨  
 일없이 치는 장구

단으로 묶어 말린 잎나무

분수없이 아무데나 돈을 함부로 쓰는 짓  
 운모

1. 온순한 맛이 없는 사람
2. 심성이 사납고 굳센 사람

모샷그릇(茅沙-)

몸길이

체장(體長)

몸서리

몸서리나다

몸서리치다

물거품

물벌레

물수건(-手巾)[-쭉-]

물시계(-時計)[-씨-]

미친꺄병(-病)

민물조개[-쫘-]

바닷말

해조(海藻)

바닷장어(-長魚)

반 : 말지거리

발뒤꿈치[-똥-]

밤소일(-消日)

밤 : 송이

밤 : 송이솔

밤저녁[-찌-]

그다지 늦지 않은 밤

배뱅잇꺄

백훗날(白虎-)

산의 백호로 된 등성이

보 : 물섬(寶物-)[-썸]

보잘것없다[-꺄-]

보잘것없이[-꺄-]

봄보리

분꺄꺄(分財-)

나누어 받은 재산의 몫

붉은빛

적색

사샷일(私私-)[-닐]

사 : 꺄꺄꺄(使者-)

사꺄꺄꺄과 함께 놓는 꺄꺄꺄

산돌림(山-)[-똥-]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오는 소나기

산박꺄(山-)[-뺑-]

산 : 영꺄꺄(-永葬)[-녕-]

병을 낫게 하려고 사람이 죽었다고 헛꺄꺄

사꺄꺄 할 때 쓰는 꺄꺄꺄

새침데기[-떼-]	
생되다(生-)[-떠-]	익지 아니하고 서투르다.
섬 : 사람[-싸-]	
속 : 열매껍질[-넬-]	내과피(內果皮)
쑤음국[-꼭]	
손사렛깃[-싸-]	
술새[-새]	1. 새 이름 2. 식물인 '술새'는 평음임..
췌소리	
수돗물(水道-)	
수령배미[-빼-]	수령으로 된 논배미
수레바퀴	
술값[-값]	술을 먹은 값
시골고라리[-꼬-]	아주 어리석은 시골 사람
시들병(-病)[-뻥]	
신기다	신계 하다.
신전줄	신전나무 끝에 매어 놓은 끈
실 : 반대[-뻥-]	뽑아낸 코치실을 등글게 사리어 놓은 것
안심	소의 갈비 안쪽에 붙은 고기
야기죽야기죽[야기중냐기죽 /야기주갸기죽]	
야물야물[야물랴물/야무랴물]	입을 귀엽게 놀려 야금야금 먹는 모양
야스락야스락[야스랑냐스락 /야스라갸스락]	
야슬야슬[야슬랴슬/야스랴슬]	야스락야스락
알긋알긋[알근날긋/알그달긋]	
알기죽알기죽[알기중날기죽 /알기주갈기죽]	
알랑알랑[알랑날랑/알랑알랑]	
알쪽알쪽[알중날쪽/알주갈쪽]	
어둠별[-뻥]	저녁의 금성(金星)
어질병(-病)[-뻥]	
여름방학(-放學)[-뻥-]	
여울여울[여울려울/여우려울]	불이 조용하게 타는 모양

여짓여짓[여진녀진/여지더진]

말이 나올 듯 나올 듯한 모양

연 : 푹국(軟泡-)

-올시다[-씨-]

외주물구석[-꾸-]

외주물집만 모여 있는 곳

외통수

(장기를 들 때) 외통장군이 되게 두는 수

요강대가리

대머리를 조롱하여 이르는 말

용골매질

심술을 부려 남의 부아를 돋우는 것

용숫바람

회오리 바람

용충줄[-쫄]

이어줄

울음소리[-쏘-]

웃음소리[-쏘-]

유들유들[유들류들/유드류들]

~한 성미

인줄(人-)[-쫄]

금줄

일긋일긋[일근닐긋/일그덜긋]

일기죽일기죽[일기중닐기죽

/일기주길기죽]

일더위[-떠-]

첫여름부터 일찍이 드는 더위

일되다[-떠-]

1. 초목이 일찍이 익다.

2. 사람이 숙성하게 자라다.

일렁일렁[일렁닐렁/일렁일렁]

자갈돌[-떨]

장식일꾼(裝飾-)[-닐-]

기명이나 가구의 장식을 만들거나 박는 사람

젯물시루[-씨-]

젯물을 내리는 데에 쓰는 시루

조 : 방꾸니(助幫-)

1. 오입판에서 조방 보는 사람

2. 어린애들의 놀이 동무가 되는 사람

중달새[-쌌]

주름상자(-箱子)

주 : 샷마늘(注射-)

중쇠(中-)

걸립패에서 상쇠 다음으로 놀이를 지도하는 사람

진덧물

진덧물내리다

진덧물이 모여 붙다.

집안사람[-싸-]

쭈그렁밤송이

차마퀴(車-)

철새[-새]

첫인사(-人事)[처던-]

첫인상(-印象)[처던-]

촌 : 샌님(村-)[-샌-]

콧노래

큰일

큰일[-닐]

테실

판셈[-셈]

다루는 데 힘이 많이 들고 범위가 넓은 일  
큰 예식이나 잔치를 치르는 일  
사려서 테를 지어 놓은 실  
빛진 사람이 빛 준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맡겨 나눠 갖게 함.

푸젓잇[-닐]

플빛[-뵈]

폴줄기[-쫄-]

하늘소[-쏘]

해골박(骸骨-)[-박]

해바라기성(-性)[-쟁]

해 : 산바라지(解産-)[-빠-]

행 : 망쩍다

허위넘다[-따]

홀소리[-쏘-]

홀수(-數)[-쑤]

활시위[-씨-]

후림비들기[-뻘-]

흙 : 집(欠-)[-쩍]

폴의 줄기

정신 들이지 아니하다.

높은 곳을 허위단심으로 넘어가다.

동무 비들기를 꺾어 들이는 비들기

흙이 진 흔적

##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金 周 弼

(국어연구소 연구원 · 국어학)

### 1. ‘표준어 모음’의 성격

문화부에서는 국어연구소에서 조사 및 검토를 하고, 문화부의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약 1,400개 정도의 고유어 어휘와 그 관련 단어를 모은 ‘표준어 모음’을 9월 14일에 문화부 공고 제36호로 발표하였다. 이 ‘표준어 모음’은 ‘표준어 규정’(문교부 고시 제88-2호)에 따라 사전간에 혼란을 보이는 고유어 단어들을 심의함으로써 이미 발간되어 시판 중인 각종 국어사전 및 출판물간에 일어나는 어휘 형태나 발음의 혼란을 막아 언어 생활의 표준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의 결과이다.

‘표준어 규정’이 발표되어 표준어를 사정할 수 있는 일반 원칙은 세워졌으나, 그것만으로 표준어 사정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표준어 여부가 문제되는 단어가 있을 때에 그 단어에 대한 표준어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일반 원칙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단어의 형태나 발음이 문제될 때 ‘표준어 규정’에 있는 일반 원칙의 어느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1936년의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토대로 하여 광복 후에 간행된 ‘큰사전’ 이래 많은 규범적인 사전이 간행되었다. 그 사전들은 표준어를 표제어로 내세우는 규범적인 사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들의 표제어 사이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사전간에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은 언어 생활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예들을 찾아 내어 하나하나 심의하는 일은 ‘표준어 규정’이 발표되고 난 뒤에 가장 시급하



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였던 것이다.

이상의 취지에서 국어사전 가운데 널리 이용되고 있는 새한글사전과 국어대사전에서 표준어로 제시한 단어가 일치하지 않는 표제어를 대상으로 ‘표준어 규정’을 적용해 가며 심의한 결과를 모은 것이 ‘표준어 모음’이다. 따라서 ‘표준어 모음’은 ‘표준어 규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2. 심의 대상 어휘의 수집과 심의 경위

국어의 표준어 사정 작업은 규범적인 사전의 편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조선어학회에서 이루어졌던 표준어 사정 작업이 사전의 표제어 단위(때로는 단어이면서 때로는 형태소)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도 그러한 사실을 말해 주며, 그 작업의 결과인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나온 1936년부터 사전 편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것도 또한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이러한 표준어 사정 작업과 사전 편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국어사전은 표준어를 표제어로 제시하게 됨으로써 그 표제어들에 차이가 보이지 않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즉 어떤 사전에서는 표준어로 제시한 표제어가 다른 사전에서는 비표준어로 처리된 경우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그 음성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가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전간의 차이는 발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사전에서는 장음으로 발음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된 단어가 또 어떤 사전에서는 장음 표시가 없으며, 어떤 사전에서는 경음으로 발음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된 단어가 또 어떤 사전에서는 경음 표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국어 생활에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표준이 되는 형태와 발음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국어연구소에서는 ‘표준어 모음’에 포함될 표준어 심의 대상 어휘는 사전의 표제어를 비교·검토하여 추출하기로 하였다. 사전은 작업의 편의상, 널리 이용되어 온 새한글사전(한글학회 간행, 1965/1986년판)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간행, 1982년판)으로 하였다.<sup>1)</sup>

1) 새한글사전과 국어대사전은 우리 나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사전일 뿐만 아니라, 새한글사전을 편찬해 낸 한글학회나 국어대사전의 편저자(고 이희승 선생)는 조선어학회의 표준어 사정 작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물론 두 사전을 비교하여 추출된 단어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두 사전 외에 많은 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즉 ‘어휘 선택’이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준어 모음’은 새한글사전과 국어대사전에서 표준어로 제시한 표제어의 어형이나 발음형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들 가운데에서 고유어와, 사전에서 그 고유어에 관련 지어 놓은 단어를 대상으로 하여 표준어(또는 표준 발음) 여부를 심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한자어나 외래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두 사전에서 상충되는 고유어에 관련되는 한자어는 ‘관련 단어’로서 포함되기도 하였다. 신조어, 전문 용어, 맞춤법이 문제되는 말은 두 사전에서 상충되더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두 사전에서 차이를 보이는 전문 용어 가운데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동식물 용어는 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말(한자어가 ‘-하다’와 결합된 말은 대상에서 제외함)이나 한자어의 변한말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단어라도 한자어의 발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준 발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준 위에서 추출된 사전 표제어들은 심의될 내용에 따라 ‘어휘 선택’과 ‘발음’으로 나누어 심의할 수 있게 하였다. 어휘 선택이 문제되는 표제어들은 ‘표준어 규정 제 1부 표준어 사정 원칙’의 세부 조항을 적용하여 심의될 단어들의 부류이고, 발음이 문제되는 표제어들은 ‘표준어 규정 제 2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심의될 단어들의 부류이다. 추출한 자료를 이렇게 분류하여 심의함으로써 ‘표준어 모음’은 다음과 같이 ‘어휘 선택’ 부분과 ‘발음’ 부분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 1) ‘표준어 사정 원칙’에 따라 심의될 부분……어휘 선택
- 2) ‘표준 발음법’에 따라 심의될 부분……발음—

장	단
경	음

‘발음’ 부분은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제 3장 음의 길이’에 따라 심의되어야 할 단어와 제 6장 ‘경음화’에 따라 심의되어야 할 단어로 나누어 각각 ‘장단’ 부분과 ‘경음’ 부분으로 분류하였으며, 합성어나 파생어

---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 삼성출판사, 1984년판)을, ‘발음’이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남광우/이철수/유만근, 1984년)’을, 그리고 동식물 용어 부분에서는 ‘동아 원색 세계대백과사전(동아출판사, 1984년), 한국 동식물 도감(문교부)’ 등을 전반적으로 참고하였으며,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조선어학회, 1936년), 큰사전, 중사전(한글학회), 국민학교 교과서(전학년 전과목, 1984년판), 중학교 국어, 국사 교과서(1984년판), 우리말 역순사전(정음사, 유재원 편저, 1984년), 우리말 분류사전(한강문화사, 남영신 편저, 1987년)’ 등을 수시로 참고하였다.

에서 ‘ㄴ’ 첨가나 사이시옷의 개제 여부가 문제되는, 다시 말해 ‘음의 첨가’가 문제되는 단어들은 편의상 ‘경음’ 부분에 포함시켰다.

국어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추출하여 분류한 다음 ‘어휘 선택’ 부분은 이상억 교수(서울대), 박갑수 교수(서울대)에게, 그리고 ‘발음’ 부분은 이병근 교수(서울대)에게 심의를 의뢰하였으며, 그 심의 결과를 국어연구소의 담당 연구원과 함께 수 차례의 회의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3인의 검토위원과 국어연구소 소장(당시 이기문 교수, 서울대)으로 구성된 표준어 소위원회의 회의(3회)를 통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심의 결과는 다시 국어연구소 표준어 소위원회 위원 4인과 이응백 교수(서울대 명예 교수), 김민수 교수(고려대), 김석득 교수(연세대), 정준섭 편수관(문교부) 등으로 구성된 표준어 심의위원회의 회의(2회)에서 검토하여 국어연구소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문화부에서 어문 정책을 주관하게 되면서 국어연구소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국어연구소(현 소장 안병희 교수, 서울대)에서는 다시 표준어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완·심의함으로써 국어연구소안을 확정하였다.

이 국어연구소안은 김민수 교수, 김석득 교수, 김승곤 교수(건국대), 안병희 교수, 유목상 교수(중앙대), 이규향 아나운서(한국방송공사), 이병근 교수, 이기문 교수, 이승욱 교수(서강대), 허응 교수(한글학회 이사장) 등 11인으로 구성된 문화부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여 3차의 토의를 거쳐 심의·확정함으로써 ‘표준어 모음’을 공포하게 된 것이다.

### 3. ‘표준어 모음’ 해설

‘표준어 모음’은 ‘표준어 규정’에 대한 보완 작업의 결과이기 때문에 ‘표준어 모음’에 포함된 단어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기준은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추출한 자료들을 ‘표준어 규정’의 어느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면서 심의했는지를 ‘표준어 모음’의 체제에 따라 ‘어휘 선택’ 부분과 ‘발음’ 부분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어휘 선택

‘어휘 선택’이 문제되는 단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취한 기본적인 태도

는 “언어 생활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휘는 풍부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즉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서 유사한 음성형을 가지는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어형을 표준어로 인정함으로써 혼란을 막되, 그렇지 않은 형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심의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발음의 변화로 인해 유발된 유사한 형태들에 대해서는 언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다른 기원을 가지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는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그 각각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표준어 심의에 임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복수표준어의 예<sup>2)</sup>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복수 표준어에 대해서는 ‘표준어 규정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의 제26항, 제19항, 제18항, 제16항에서 그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제26항은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내용으로,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다른 기원을 가지면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들은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태도에 부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표준어 규정’ 제26항을 적용하여 여러 형태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할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각시/새색시, 간밤/지난밤, 값나다/금나다, 거름밭/거름기(-氣), 군기침/헛기침, 남차답다/사내답다, 덜개/뚜껑, 뒤뒤/드레드레, 땅덩어리/땅덩이, 뚱뚱이/뚱뚱보, 물매/못매, 배넛니/젓니, 사거리(四-)/네거리, 색깔/빛깔, 소낙비/소나기, 앞마당/앞뜰, 어린뻘/물렁뻘, 오라범댁/올케, 초벌/애벌, 훗날/뒷날

- 2)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라는 용어는 편의상 붙인 용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복수 표준어라고 하여 그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단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단수 표준어라고 하여 해당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 그 단어만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다. 복수 표준어는 사전에서 같은 의미(완전히, 또는 부분 의미가 같은)를 가지는 것으로 관련 지어 놓은 단어들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에 사용한 용어이며, 단수 표준어는 관련지어 놓은 단어들 가운데 하나만 인정된 경우에 사용한 용어이다. 따라서 복수 표준어에는 유의어(다의어인 경우에는 일부 의미가 유의 관계에 있는 말), 어감의 차를 가지는 말들, 그리고 사전에서 같은 뜻을 가지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별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말 등이 포함되며, 단수 표준어의 경우에도 검토되지 않은, 유의 관계에 있는 다른 단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 표준어와 단수 표준어가 엄격히 구별되는 용어는 아닌 것이다.

위의 예들에서 새한글사전과 국어대사전 가운데 한 사전은 빗금(/) 앞의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하여 뒤의 단어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였으나, 다른 한 사전에서는 비표준어로 처리하면서 그 단어의 표준어로 빗금 뒤의 단어를 제시하고 있는 예들이다. 다시 말해서 한 사전에서는 빗금 뒤의 단어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 사전에서는 두 단어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인데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빗금 앞의 단어도 표준어로 인정함으로써 복수 표준어가 된 예들이다.

그러나 발음이 유사하더라도 제19항과 같이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제19항도 또한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라 어감의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 예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데미썩우다/다미썩우다, 뜨문뜨문/드문드문, 뻘덕/뵤덕, 살긋하다/셀긋하다, 쌍소리/상소리, 아련하다/오련하다, 아유/아이구, 아지직/오지직(아지작), 알금삼삼/알금쑹쑹, 어유/어이구, 어화둥둥/어허둥둥, 자욱하다/자욱하다,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빗금 앞의 단어들이다. 빗금 뒤의 단어들은 두 사전에서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빗금 앞의 단어는 한 사전에서는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 사전에서는 비표준어로 처리하면서 빗금 뒤의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이번 심의에서 어감의 차이를 가지는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표준어 규정’ 제18항도 복수 표준어를 인정한 부분이다. ‘네/예, 쇠-/소-, 꺾다/고이다, 꺾다/꼬이다, 썩다/썩이다, 꺾다/조이다, 꺾다/썩이다’와 같이 몇 개의 어휘에 대해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유형으로 새로 추가된 것은 없다. 단지 두 사전에서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가 어긋나는 ‘꺾임’과 ‘꺾임새’에 대해서는 이미 ‘표준어 규정’에 표준어로 제시되어 있는 ‘꺾임/고임’과 ‘꺾임새/고임새’가 있으므로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 마찬가지로 ‘네/예’가 인정되고 있어 거의 쓰이지 않는 ‘네’는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

한편 ‘표준어 규정’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sup>3)</sup>는 원

3) 물론 이 항은 준말과 본말의 관계를 엄격하게 명시하지 않은 ‘조선어 표준말

최도 국어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폭넓게 수용하였다.

가래질꾼/가래꾼, 고운대/곤대, 골작/골짜기, 나방이/나방, 눈썹/눈싸움, 돈지갑/지갑, 돋보기안경/돋보기, 동강이/동강, 모군꾼/모군, 복어/복, 적이버섯/적이, 우포딱지/우포, 움막집/움막, 증바랑/바랑, 절레/절레나무

물론 ‘표준어 규정’ 14항(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에 따른 것(×복생선/복, 복어, ×지딱총/딱총)도 있고, 제15항(준말이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에 따른 것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제16항에 따라 준말과 본말의 관계에 있는 말들은 인정하는 쪽으로 심의하였던 것이다(×표를 한 단어가 비표준어로 처리된 것이다. 이하 같음).

사전에서 같은 뜻을 가지는 것으로 관련지어 놓은 단어가 다른 형태소들의 결합형이라 하여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 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제25항의 규정에 따라 거의 쓰이지 않거나, 방언의 인상을 강하게 주는 단어는 비표준어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

×간해/지난해, ×개지/강아지, ×곰탕/곰팡이, ×곱수머리/곱슬머리, ×덧구두/덧신, ×바람꾼/바람둥이, ×배춧패기/배추속대, ×솔개미/솔개, ×시초잡다/시작하다, ×아랫동강이/종아리, ×키장다리/키다리, ×형제주인어멈/쌍둥이  
중매

이렇게 단수 표준어를 인정한 경우가 그 기원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예들은 발음의 변화에 의해 생기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기원을 가지는 말이면서 발음의 변화 때문에 약간의 차이를 가진 음성형일 경우에는 대부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느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

모음’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준말과 본말의 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대체로 ‘준말’과 ‘본말’의 관계로 처리하고 있는 단어들은 그 결합되는 형태소가 다른 것들이어서 준말과 본말의 관계로 볼 수 없는 것들도 있으며 준말과 본말의 관계라기보다는 ‘본말’과, ‘그 본말에 형태소가 결합되어 길어진 말’의 관계라고 해야 할 것도 있다. 그러나 준말과 본말의 관계를 편의상 음절수가 많은 것과 적은 것 정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제17항에서처럼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 단어들도 있다.

×기지랑물/지지랑물, ×꼬끼덕/꼬꼬덕, ×꼬치/고추, ×꼬치/고치, ×맵쌀/맵쌀, ×마련/매련, ×땀동스럽다/땀살스럽다, ×셋까맣다/새까맣다, ×아웃/가웃, ×오그랑쪽박/오그랑쪽박, ×음살/엄살, ×우명하다/의명하다, ×자/재, ×저지난달/지지난달, ×지지콜콜이/시시콜콜히, ×힘집/흙집(欠-)

‘표준어 규정’ 제 9 항의 “‘ㄱ’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한 부분도 언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발음의 변화에 기인하는 어형들에 대해서 단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추출된 예는 그리 많지가 않다. ‘아기, 아비’는 두 사전에서 모두 인정하면서 그 각각에 ‘ㄱ’모음역행동화가 적용된 ‘애기’와 ‘애비’에 대해서는 한 사전은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으나, 다른 한 사전에서는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있는데 ‘표준어 규정’ 제 9 항을 적용하여 비표준어로 처리하였다.<sup>4)</sup>

4) 이번 심의에서 ‘표준어 규정’의 원칙과 달리 ‘ㄱ’모음 역행동화가 적용된 어형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 두 가지 있다. ‘깍뎀기’류와 ‘꼬챙이’류가 그것이다. ‘깍뎀기’류에는 한 사전에서 ‘결깍뎀기, 속깍뎀기, 훌깍뎀기’로 한 사전에서는 ‘결깍뎀기, 속깍뎀기, 훌깍뎀기’로 되어 두 사전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단어들로서 두 사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는 ‘깍뎀기’에 따라 그리고 현실발음에 따라 ‘결깍뎀기, 속깍뎀기, 훌깍뎀기’를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꼬챙이’와 ‘꼬창이’ 중에서 ‘꼬챙이’를 표준어로 택한 ‘꼬챙이’류는 사정이 다르다. ‘표준어 규정’의 제25항에서 ‘꼬창모’를 선택하면서 ‘비교’란에서 “꼬창이로 구멍을 뚫으면서 심는 모”라고 주석을 덧붙여 ‘꼬창이’를 이미 선택한 것처럼 보이며, 그러한 결정은 이번 심의 결과인 ‘꼬챙이’가 상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의 ‘꼬창이’는 ‘비교’란에서 ‘꼬창모’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서 심의 대상이 되었던 단어가 아니며 ‘표준어 규정’의 ‘표준어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새한글사전’만 제외한다면, 현재 통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전(큰사전(한글학회), 중사전(한글학회), 국어대사전, 새우리말큰사전(삼성출판사), 일반 외국어대역사전 등)에서, 그리고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꼬챙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말의 현실 발음도 ‘꼬챙이’이므로 ‘꼬챙이, 가르마꼬챙이, 쇠꼬챙이, 이엉꼬챙이’를 표준어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표준어 규정’ 제25항의 ‘꼬창모’와의 관련성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나, ‘표준어 규정’ 제 8 항에 사람을 뜻하는 말로 ‘-둥이’를 인정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말이 ‘쌍둥밤(표준어 규정 제25항), 쌍둥아들, 쌍둥중매’ 등에서는

‘표준어 규정’ 제 8항의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깡충깡충, -둥이, 오뚝이 등)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제 8항에 제시되지 않은 의성어나 의태어는 기존의 모음 조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하였다. 양성모음 다음에 양성모음이 오는 형태와 음성모음이 오는 형태, 예를 들어 ‘다리가 길다’는 뜻으로 ‘깡충하다’와 ‘깡충하다’를 어감의 차이를 가지는 말로 모두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발음의 변화 상태에 있는 어휘를 모두 기계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유형화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기 때문에 ‘표준어 규정’의 제 8항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예외의 폭을 줄이고자 하였다.

×깡충하다<sup>5)</sup>/깡충하다, ×담쭈<sup>6)</sup>/담쭈, ×오돌오돌<sup>7)</sup>/오돌오돌, ×우둘우둘<sup>8)</sup>/우둘우둘, ×해발쭈하다/해발쭈하다, ×호로로<sup>9)</sup>/호르르, ×호루루<sup>10)</sup>/호로로

한편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던 ‘-장이/-쟁이’의 경우에도 ‘표준어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다. 즉 제 9항의 붙임 2의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원칙을 그대로 따르되, 기술자, 좀더 구체적으로 ‘匠人’이란 뜻이 살아 있는 말은 ‘-장이’로, 그 외에는 ‘-쟁이’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匠人’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다음 단어들은 ‘-장이’를 버리고 ‘-쟁이’를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피장이/피쟁이, ×난봉장이/난봉쟁이, ×무식장이/무식쟁이,  
×마술장이/마술쟁이, ×요술장이/요술쟁이, ×야발장이/야발쟁이

‘-둥-’을 표준어로 인정한 예도 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준어 규정’의 비고란의 ‘꼬창이’는 ‘꼬챙이’로 고쳐야 할 것이며 제 25항의 ‘꼬창모’는 ‘꼬챙이’로 변하기 전의 ‘꼬창이’에서 굳어진 단어로 보면 문제가 없다.

- 5) 다리가 길다. 큰 말은 ‘깡충하다’임.
- 6) 손으로 탐스럽게 쥐거나 팔로 탐스럽게 안는 모양.
- 7) ‘오돌오돌’을 ‘출거나 무서워서 몸을 떠는 모양’의 뜻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사전에 있는 대로 ‘삶긴 물건이 무르지 아니하여 이리저리 따로 밀리는 모양’의 뜻으로는 인정함.
- 8) ‘우둘우둘’을 ‘출거나 무서워서 몸을 떠는 모양’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사전에 있는 대로 ‘삶긴 물건이 무르지 아니하여 이리저리 따로 밀리는 모양’의 뜻으로는 인정함.
- 9) ‘날짐승이 나는 소리’나 ‘종이가 타는 모양’의 뜻으로는 ‘호로로’를 버리지만, 두 사전에 일치하는 ‘호루라기나 호각 따위를 부는 소리’로는 인정함.
- 10) 호루라기나 호각 따위를 부는 소리.



어원과 관련하여 발음의 변화로 인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제 5항의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으나,

기겁하다/×기급하다(氣急-), 내송/×내홍(內凶), 내송스레/×내홍스레(內凶-)

제 5항 ‘다만’의 “어원적으로 더 가까운 형태가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조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심의된 다음과 같은 단어들도 있다.

×상좌/상좌(上佐), ×상창/상창(上唱), ×엠집/여염집(閭閻-),  
×수무/수모(手母), ×채송아/채송화(菜松花), ×팩성/팍성(懷性)

지금까지 설명한 예들은 대부분이 두 사전에서 빗금 뒤의 단어는 인정하면서 빗금 앞의 단어에 대해 한 사전에서는 표준어로 인정하고 다른 한 사전에서는 빗금 뒤의 단어로 대치되어야 할 비표준어로 처리하고 있는 예들이었다. 따라서 표준어 심의의 주 대상이 되었던 것은 빗금 앞의 단어였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빗금 뒤의 단어를 비표준어로 처리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미 고시된 ‘표준어 규정’의 예시어에 따라 바뀌어야 할 단어나, 거의 쓰이지 않거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빗금 뒤의 단어도 비표준어로 처리한 경우가 있다.

기겁하다/×기급하다(氣急-), 기꼭지(旗-)/×기대강이(旗-), 심술통이(心術-)/  
×심술통이(心術-), 자두나무/×오얏나무, ×웃알/×위알(→웃알)

그런데 두 사전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서로 다르게 제시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사전에서는 ‘간장쪽박’을 다른 한 사전에서는 ‘간장쪽박’을 제시한 경우에는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게 되면 국어 어휘를 풍부하게 하기보다 국어 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이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표준형을 인정해야 할 성격의 단어들이었다(( ) 속의 숫자는 ‘표준어 규정 제 1장 표준어 사정 원칙’의 항번호임).

×겉껍더기/겉껍데기(09), ×계꼬리/계꽂지(25), ×물앵도(-櫻桃)/물앵두(05),  
×병태기/병태기(17), ×별미적다(別味-)/별미적다(別味-)(17), ×부레꿍다/부레꿍다(25), ×새치름하다/새치름하다(17), ×속껍더기/속껍데기(09), ×쇠벼

즘/쇠버짐(17), 아래알/×아랫알(17), 콩더콩/×콩덕콩(17)

그런데 지금까지 비표준어로 처리한 단어가 다의어일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사전에서 혼란을 보이고 있는 다의어 단어를 이번 심의에서 비표준어로 처리했다고 해서 그 단어를 완전히 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제외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령 ‘알심’이라는 단어의 경우, 사전에서는 “ㄱ) 은근한 동정심, ㄴ) 속에 있는 힘, ㄷ) (식물) 고갱이”로 주적이 되어 있는 다의어이다. 이 의미들 중에 ㄱ)과 ㄴ)의 뜻에 대해서는 새한글사전과 국어대사전이 동일하지만 ㄷ)의 뜻으로는 차이를 보인다. 즉 한 사전에서는 ㄷ)의 뜻으로 인정하였지만, 다른 한 사전에서는 ㄷ)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의 결과는 ㄱ)과 ㄴ)의 뜻으로는 ‘알심’을 인정하지만 “ㄷ) 고갱이”의 뜻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의어인 어떤 단어를 비표준어로 처리했을 경우, 그 단어에 관련 지어 놓은 단어(즉 ‘알심’의 경우에는 ‘고갱이’)의 뜻으로만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뜻으로는 여전히 국어의 어휘 체계 내에는 남아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다의어를 비표준어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그 단어에 관련 지어 놓은 단어의 뜻으로만 사용할 수 없으며 — 그 뜻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관련 지어 놓은 단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 그 나머지의 뜻으로는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문 용어의 경우에는 이번 심의에서는 그 대상으로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동식물의 경우에는 전문 용어와 일상 용어 사이에 많은 차이가 드러나서 심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두 사전에서 서로 어긋나는 동식물 용어를 추출하여 전문가(식물: 정영훈 서울대 명예 교수, 동물: 김훈수 서울대 명예 교수)에게 의뢰하여 전문 용어로서 심의를 받은 후,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동식물 용어를 일상 용어로서 심의하였다. 가령 ‘왕벌, 호박벌, 말벌’과 같은 말들은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사전에서의 상태는 각각 다르다. 즉 한 사전에서는 ‘왕벌, 말벌’을, 곤충류 벌목 꿀벌과의 학명 *Bombus ignitus*인 생물체를 지칭하는 ‘호박벌’의 한 별칭으로 인정하였으나, 또 한 사전에서는 ‘왕벌’은 비표준어로 처리한 반면 ‘말벌’은 ‘호박벌’과 함께 쓰도록 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식물 용어를 두 사전에서 추출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전문 용어로서는 ‘호박벌’을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왕벌, 말벌’을 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버릴 수는 없으므로 전문 용어로 ‘호박벌’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일상 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큰 벌’이라는 의미로 ‘말벌’과 ‘왕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동식물 용어의 심의 결과를 몇몇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갈잎나무/떡갈나무,<sup>11)</sup> 갯버들/땅버들,<sup>12)</sup> 들오리/물오리,<sup>13)</sup>  
 왕매미/말매미,<sup>14)</sup> 제비꽃/오랑캐꽃,<sup>15)</sup> 주꾸미/꿀뚜기<sup>16)</sup>

## 2) 발 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어는 1936년에 조선어학회에 사정·공표한 ‘(사정한)조선어 표준말 모음’에 직접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는 ‘표준 발음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표준어 규정’에 와서 ‘표준 발음법’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짐으로써 발음형에 대한 준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 선택의 경우에서처럼 ‘표준 발음법’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되는 단어의 표준 발음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발음이 문제되는 단어의 표준형을 정하려면 서울의 현실 발음을 토대로 하되 ‘표준 발음법’의 어느 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음’ 부분도 새한글사전과 국어대사전에서 그 발음형이 일치하지 않는 단어들을 심의한 결과를 모은 것이다.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의 ‘음의 길이’에 해당하는 ‘장단’ 부분과, ‘경음화’나 ‘음의 첨가’에 해당하는 ‘경음’부분을 ‘표준 발음법’에 따라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장 단

장단, 즉 음의 길이에 관한 발음 규정은 ‘표준어 규정’의 ‘제 2부 표준 발음법’ 제 3장 제 6항, 제 7항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제 6항에서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

- 
- 11) ‘떡갈나무’는 ‘갈잎나무’(가을철에 잎이 떨어져서 마른 나무처럼 되는 나무)의 일종임.
  - 12) 전문 용어로는 ‘갯버들’을 인정함.
  - 13) ‘들오리’는 ‘짐오리’에 대하여 야생의 오리를, ‘물오리’는 ‘청둥오리’를 말함.
  - 14) ‘큰 매미’의 뜻으로 모두 인정함. 전문 용어로는 ‘말매미’임.
  - 15) 전문 용어로는 ‘제비꽃’을 인정함.
  - 16) ‘주꾸미’는 낙지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의 일종으로 ‘꿀뚜기’와는 별개임.

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제 2음절 이하에서의 장단은 문제되지 않는다. 즉 ‘눈보라[눈:보라], 말씨[말:씨], 밤나무[밤:나무], 많다[만:타], 멀리[멀:리], 벌리다[벌:리다]’에서와 같이 단어의 제 1음절에서만 장음을 인정하고 그 이하의 음절에서는 모두 단음으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첫눈[천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 수많이[수: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벌리다[떠벌리다]’ 등에서처럼 제 1음절에서 길었던 ‘눈[눈:], 말[말:], 밤[밤:]’이나, ‘많다[만:타], 멀리[멀:리], 벌리다[벌:리다]’의 ‘[만:-], [멀:-], [벌:-]’ 등이 합성어나 파생어를 이루어 제 2음절 이하의 위치가 되면 짧게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음의 길이가 문제되는 단어는 제 1음절이 그 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제 6 항의 뒷부분에서는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고 하면서 ‘반신반의[반:신 바:의/반:신 바:니], 재삼재사[재:삼 재:사]’를 들어 놓고 있다. 이 예들은 ‘반신-반의, 재삼-재사’처럼 두 단어와 같이 어느 정도로는 끊어서 발음할 수 있는 첩어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이다. 앞에서 살펴본 ‘수많이’[수:마니]와 같은 일반적인 합성어에서는 ‘많다’[만:타]의 제 1음절에서 장음으로 실현되는 [만:-]이 제 2음절의 위치가 되면서 단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이) 많다’의 경우, 두 단어로 인식할 때에는 [말: 만:타]로 발음함이 원칙이나 한 단어로 인식할 때에는(표기상으로는 붙여 쓴다) [말:만타]로 짧게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sup>17)</sup>

이러한 기준 위에서 이번 심의에서는 ‘건너대다[건:너대다], 골라내다[골라내다], 본데없다[본데업따], 진배없이[진배업씨]’ 등과 같이 제 3음절에 있는 ‘대-, 내-, 없-’ 등도 그 앞의 성분을 각각의 단어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 모두를 하나의 단어로 인식한다면 짧게 발음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제 1음절의 발음의 심의를 하는 데에는 먼저 사전에서 동일한 요소를 가지는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되느냐를 증시하여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서울토박이 화자의 발음과 ‘한국어표준발음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 ‘낯설다, 눈멀다, 맥없다, 성내다, 침뱌다, 힘세다, 힘없다’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벌리다’의 첫음절은 긴소리로 발음하지만, ‘떠벌리다’의 ‘벌’은 짧게 발음하는데, ‘휘몰다, 떠돌다, 비웃다’ 등의 ‘몰-, 돌-, 웃-’도 마찬가지이다. ‘표준어 규정 해설’, pp. 51~53.

간행, 1984년)의 발음을 참고로 하였다. 심의 결과를 몇몇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장음으로 심의된 것

갈:물이, 건:넛방, 걸:터앉다, 끌:라잡다, 관:두다, 내:친걸음, 달:라다, 떨:감, 모:기, 숨:소리, 아:무렇게, 언:제, 영:덩이, 온:종일, 유:난히, 해:

\* 단음으로 심의된 것

거랑꾼, 관자놀이, 굴렁쇠, 길, 노랑, 노름, 대야, 때꾼하다, 미투리, 밀범벅, 보조개, 쉬술다, 애바르다, 우수리, 장아찌, 지나가다, 지난달, 피리, 해망쩍다

정의적(情意的, emotive)인 장음은 어휘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며 강조하기 위한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가 반영된 발음이므로 표준 발음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령, 단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심의된 ‘그리(그곳으로), 대견하다, 지난달’ 등의 제 1음절의 발음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길게 발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긴 발음은 개인적인 차원의 것이므로 이런 부류에 포함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도 어렵고 얼마만큼 강조할 때 어느 정도로 길게 발음해야 할지 그 기준을 세우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단어들은 이번 심의에서 단음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정의적인 발음은 특히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러한 의성어, 의태어도 단음을 원칙으로 심의하였다.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불가불, 거붓거붓, 꺾꺾, 꺾꺾, 꿀꿀, 꿩꿩, 덜덜, 들들, 떠죽떠죽, 뱅뱅, 부라부라, 뽕, 뽕뽕, 쓱쓱쓱쓱, 외외, 웅웅, 웅웅, 짹짹, 쫄쫄, 짹짹, 짹짹

색채형용사도 정의적인 장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 부류이다. 색채형용사의 경우에도 의성어, 의태어에서처럼 단음을 원칙으로 하였다(예: 노랑, 벌경 등). 그러나 ‘-양/영-’이 결합된 색채형용사(또는 그에 준하는 형용사)는 ‘-양/영-’이 결합됨으로써 그 의미가 강조되어 전반적으로 장음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장음을 표준 발음으로 하였다. ‘-양/영-’이 결합된 색채형용사(또는 그에 준하는 형용사)의 심의 결과를 몇몇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망다, 가:매지다, 까:망다, 뇌:랑다, 누:렇다, 누:레지다, 뉘:렇다, 말:장다, 말:장다, 말:게지다, 벌:장다, 보:양다, 보:애지다, 뿌:영다, 파:랑다, 파:

래지다, 퍼:레지다, 하:얏다, 허:엇다, 허:예지다

## 2] 경 음

‘표준 발음법’의 제 6 장 ‘경음화’의 제 23항, 제 24항, 제 25항(제 26항은 한자어에 적용되는 규칙임), 제 27항은 그 각각에 명시된 조건만 맞으면 그러한 경음화 현상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에, 즉 항상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단어를 개별적으로 심의할 것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심의해야 할 것은 제 28항이다.

제 28항에는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하면서 ‘문꼬리[문꼬리], 길가[길까], 그믐달[그믐딸], 등불[등뿔]’ 등을 예로 들어 놓고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제 28항에서 다루고 있는 받침 ‘ㄴ, ㄹ, ㅁ, ㅇ’ 다음에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즉 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합성어의 ㄴ, ㄹ, ㅁ, ㅇ 다음에 오는 말(형태소)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있는 단어의 발음이 문제되면 그 표준 발음형을 단어마다 개별적으로 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전에서는 이러한 환경에 있는 단어의 발음 표지에 있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경음’ 부분의 심의는 이러한 환경에 있으면서 사전에서 일치를 보이지 않는 이러한 단어의 발음의 심의에 초점이 모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어의 발음을 심의한 결과를 몇몇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경음으로 심의된 것

가슴살[-쌀], 겨울잠[-잠], 날다람쥐[-따-], 농:지거리[-찌-],  
속음죽[-죽], 웃음소리[-쏘-], 집안사람[-싸-], 흙:집[-쩍]

### \* 평음으로 심의된 것

가을보리, 들:국화, 등배운동, 몸서리, 물거품, 밤:송이, 신기다,  
안심, 의통수, 주름상자, 쭈그렁밤송이

한편, 모음으로 끝나는 말과 ‘ㄱ, ㄷ, ㅂ, ㅅ, ㅈ’으로 시작하는 말로 시작되는 합성어에 있어서도 경음화 여부가 문제된다. 이런 환경에서도 뒤의 ‘ㄱ, ㄷ, ㅂ, ㅅ, ㅈ’이 경음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평음으로 실현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음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합성어의 앞 말에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어 ‘표준 발음법’의 제30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구뚫주걱, 미친갯병(-病), 바닷말, 바닷장어(-長魚), 첫소리,  
수돗물(水道-), 배빵잇굿, 주삿바늘(注射-), 진뎛물, 콧노래

\* 평음으로 심의된 것 : 수레바퀴, 차바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는 제29항의 경우에도 문제되는 단어가 있으면 개별적인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제29항의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리)’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6.25[유기오], 3.1절[사밀절], 송별연[송벼련]’ 등의 단어를 제시하고 있어서, 사전에서 ‘ㄴ’첨가가 문제되는 단어의 발음을 제29항의 원칙에 따라서 ‘ㄴ’이 첨가된 발음으로 해야 할지 ‘다만’에 따라 ‘ㄴ’소리를 첨가하지 않은 발음으로 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심의에서 ‘ㄴ’이 첨가된 발음으로 심의된 것도 있고(사삿일[-닐], 깔유리[-류-] 등), ‘ㄴ’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심의된 것(첫인사[처던사], 첫인상[처던상] 등)도 있다.

‘표준 발음법’의 ‘음의 첨가’에서 두 가지 발음형을 모두 폭넓게 수용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말들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는 부분(표준발음법 제29항의 ‘다만’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가령 ‘야금야금’과 같은 단어는 [야금냐금]도 되고 [야그먄금]도 된다는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자어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첩어적 성격을 띠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그러한 환경을 가지는 고유어에 한정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였다.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야기죽야기죽[야기중냐기죽/야기주갸기죽], 야슬야슬[야슬라슬/야스라슬],  
얄기죽얄기죽[얄기중날기죽/얄기주갈기죽], 유들유들[유들류들/유드류들]

#### 4. 맺는 말

언어는 공간(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

서 사람에 따라 표준어에 대한 인식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표준어 심의 자체도 어렵고, 심의된 결과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이견을 가질 수 있다. 언어의 이러한 다양성의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이나 집단의 다양한 언어, 다시 말해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언어에 대해 하나의 정지된 상황을 설정하여 표준의 틀을 만들고 또한 만들어진 그 틀에 따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의 통일된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 다양성만을 고집할 수 없다. 어떤 집단, 어떤 사회에 있어서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 개인이나 집단에게는 양보와 희생이 요구되며 그러한 사정은 표준어를 정하고, 정해진 표준어를 받아들여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조금씩만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우리는 그 대가(代價)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이 사회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언어는 사고의 표상이요, 의식의 외양이기 때문에 표준어를 잘 다듬어 사용하면 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진작시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 누구나가 표준어를 정확히 익혀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해진 표준어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널리 보급하는 일도 중요하다. 문화부에서는 한글 기계화의 일환으로 개발 중에 있는 스펠링 체크(spelling check) 프로그램에 이미 고시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물론이고, 이 ‘표준어 모음’도 입력시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국어연구소에서는 이 ‘표준어 모음’의 내용을 일반 언어 생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표준어 모음’의 해설집을 내려고 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발맞추어 신문, 잡지, 방송 등의 언론 매체에서는 물론, 각급 학교에서도 정해진 표준어를 사용하고 널리 보급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표준어 규정’이 공포되어 일반 원칙이 정해지고 이번에 다시 ‘표준어 모음’이 공포됨으로써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문제성이 있는 고유어에 대한 검토는 일단락 지은 셈이 된다. 그렇다고 국어의 표준화 사업이 완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표준어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단어도 전반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채 남아 있으며 문화와 생활 공간의 변천에 따른 어휘의 의미나 형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어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나, 물밑듯이



들어오는 외국어와 외래어의 표준화 작업도 단시일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부에서는 앞으로도 표준어 사정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정한 결과를 매년 발표함으로써 출판사를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미칠 수도 있을 불편과 혼란을 덜기 위해 발표만은 상당기간 유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표준어 작업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그 결과가 모두 수록된 ‘표준국어사전’이 나오므로써 국어의 표준화 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